

좋은 인연으로 동산 가득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이야기

초록연꽃

불기 2554년 / 2010(통원 11호)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
정토 만일회

인디언 기도문

작자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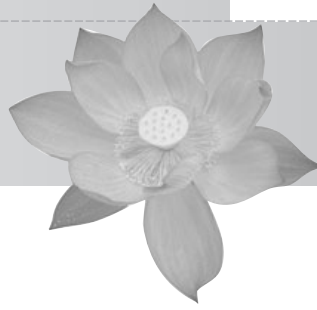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게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당신이 내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 틈에 감춰 둔 교훈들을
나 또한 배우게 하소서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럽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2010년 통권11호 초록연꽃



- 02>> 햇살마루 /인디언 기도문..... 작자미상
- 04>> 산중일기 /꿈을 찾는 아이들 원장 승옥스님
- 05>> 발자취 /연혁, 아동현황
- 06>> 처음처럼 /동산 다솜 강호민
- 07>> 공익근무기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강다규
- 09>> 템플스테이의 추억 /템플스테이를 다녀와서 석원진
- 10>> 자연사랑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나서 이상민
- 11>> 경제교육프로그램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교육을 받고 나서..... 김한비
- 12>> 해외문화교류 프로그램 /베트남 동나이성 청소년과 함께 한 추억 ... 황홍점
- 13>> 별자리 여행 /별자리 체험을 하고 나서..... 어득수
- 14>> 문화교육프로그램 /풍물수기-보리수 어울림 최희종
- 16>> 체험학습 /산청 경호강 레프팅을 다녀와서 석원진
- 17>> 체험학습 /대구 허브힐즈를 다녀와서 신영미
- 18>> 부처님이야기/밀행제일密行第一라홀라존자 원각스님
- 20>> 초록연시/1, 2, 3회 보리수백일장 수상작 김신, 신영미, 박지환
유승영, 김성일, 김효림
- 22>> 한국의 명산 덕유산 기행기
- ① 힘들지만 보람된 덕유산 산행을 다녀와서 신경이
- ② 덕유산을 다녀와서 최성진
- 24>> 보리수 만형의 편지 /새해 보리수 동생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마음 ... 김종진
- 25>> 건강상식 /신종플루 유행과 마늘 이야기 이숙진
- 26>>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 30>> 후원해주신 분들
- 44>> 예 · 결산보고

참 좋은
연연입니다.



꿈을 찾는 아이들

경상남도 (TINH GYEONG SANG NAM) 보리수동산 (BORISUDONGSAN) 2009. 09. 19

글 | 보리수동산 원장 승옥스님



아이들을 키우는 일반 가정도 마찬가지였겠지만 70명 아이들이 생활하는 보리수동산의 겨울방학은 그야말로 왁자지껄한 가운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아침예불로 하루를 시작해서 생명평화 선언문을 함께 독송하며 잠자리에 들 때까지 40여명의 중고등학생과 30명의 초등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어울려 지내다 보면 온갖 일들이 벌어진다. 서로 다투다가 정오관이 떠나가도록 울음을 터트리는 건 예사로 있는 일이고, 장난을 치다가 팔이 부러지고 발가락이 깨져 병원에 연달아 드나들기도 한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갑자기 벌어질 때는 놀라 허둥대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커 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기도 하고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

이런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있는 아이들은 집에 다녀오기도 하고 보리수동산에 남아 있는 아이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한다. 보리수동산을 대표하는 풍물패수업과 축구부 활동, 인라인, 서예, 밴드부, 국술, 원어민 영어수업 등등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동아리에 참여하여 기량을 갈고 닦는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는 여러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을 모시고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특기를 무대에 나가 선보이는데 이번 송년축제 때 아이들의 공연은 그 어느 때보다 멋지고 탁월하여 많은 분들의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번에 보리수동산 아동 중에서 두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모두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아갔기 때문에 흐뭇하고 보람을 느낀다. 한 명은 예전부터 자신을 후원해주던 분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가 집을 짓고 실내 장식을 하는 일을 배우고 있는데 한 주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일 하는 것이 재미있고 사장님과 직장 선배들이 잘 챙겨주어 만족스럽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한다. 그리고 다른 한명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취업의 어려움 등등의 이유로 주변에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음대 입시를 준비하더니 이번에 전액 장학금으로 계명대학교 음대 관현악과에 입학했다. 본인의 노력은 물론 담당 선생님의 지극한 관심과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아이가 대견스럽고 고마울 뿐이다.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았으니 매 순간순간 어렵고 힘든 고비가 찾아오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그 자체로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처럼 보리수동산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자립을 준비하는 아이들, 퇴소한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한테 어떤 소질과 재능이 있고 어떤 길을 찾아 갈 건지를 일찍 발견한 아이들일수록 의욕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청소년기를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보리수동산이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찾고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의 디딤돌과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보리수동산 연혁 · 아동현황

： 보리수동산연혁

1976년 경남 고성 옥천사 청연암에서 아동보호시작 (주지 승욱스님)
 2000년 06월 15일 “구” 좌련분교 임대 (향후 5년간)
 2002년 08월 26일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설립허가
 2002년 10월 24일 “구” 좌련분교 매입
 2003년 01월 13일 아동복지시설 신고 (보리수동산)
 2003년 07월 20일 카페 1주년 행사
 2003년 12월 16일 창원전문대학 산. 학 협동 협약식
 2003년 12월 27일 송년의 밤 행사(해넘이 밤)
 2004년 07월 18일 카페2주년 행사
 2004년 08월 16일 백두대간 산행
 2004년 12월 31일 송년의 밤 행사
 2005년 05월 08일 어버이날 행사(지역 어르신)
 2005년 07월 17일 카페3주년 행사
 2005년 08월 03일 여름불교학교 (4박5일)
 2005년 10월 22일 아름다운 사람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2006년 07월 08일 봉림중학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6년 07월 23일 보리수동산 정토관 준공식
 2006년 12월 16일 송년의 밤 행사(꿈+희망=행복)
 2007년 05월 03일 창원삼정자초등학교&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07월 21일 거성실업&보리수동산 자매결연
 2007년 10월 14일 카페4주년 & 가을 체육대회 행사
 2008년 03월 01일 안양원 증축 중 · 고생 입실
 2008년 12월 13일 송년음악회
 2009년 09월 16일 경남FC보리수동산 경남FC U-15 고성축구클럽 창단식
 2009년 12월 16일 송년축제 행사

참 좋은
연연입니다.

： 아동현황

연령 구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	기타	계
남	1	14	21	16	2	1	55
여		3	6	3	·	·	12
계	1	17	27	19	2	1	67

： 직원현황

직책 구분	원 장	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상담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자립전 담요원	계
남	1	1		4	1				1	8
여			1	10		1	1	1		14
계	1	1	1	14	1	1	1	1	1	22



“동산다솜”

글 | 사회복지사 강호민



보리수동산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면접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다.

그 날, 면접시간 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서 보리수동산 근처에서 잠깐 배회하고 있을 때였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길가를 걸어가면서 내가 타고 온 자동차를 힐끔 힐끔 쳐다보셨다. 나는 낯선 사람이 시골동네에 와서 그러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계속 쳐다보시기에 차를 돌려 할머니께 가서, "태워드릴까요?" 라고 여쭙었지만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다. 할머니가 나를 경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보리수동산에 면접을 보러 왔다고 사정애기를 하니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기 집으로 가

자고 했다. 면접시간까지 시간이 꽤 남아 있었기에 근처의 할머니 집으로 따라갔다. 할머니는 처음 보는 나를 집 안으로 들이고 과일까지 내주셨다.

할머니는 내가 손자 같다면서 좋아하시며,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사탕을 하나 까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탕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면접에 딱 붙으라고 사탕하나 까주는 거야"라며 사탕을 입 안에 넣어 주셨다.

고마운 할머니 덕분인지 나는 면접에 합격하였고, 보리수동산의 한 가족이 되었다. 처음 만난 짧은 인연이었지만 아직도 할머니의 고마움이 내 가슴 속에 남아 있다.

보리수동산의 한 가족이 되고 두 달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김장축제, 송년의 날, 해맞이 산행, 겨울 산행 등 아이들과 함께 한 시간들을 떠올리면 절로 웃음이 나고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큰 축복이자 행운이다. 왜냐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난 정말 행복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밝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저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무표정하게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들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아이들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힘을 얻는데, 나도 아이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본다.

이곳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울 점이 많구나, 더욱 노력 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

아이들도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로 표현은 잘 안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의 감사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밝게 웃으며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 나간다면 굳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흐뭇해 할 것이다.

원장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보리수동산의 주인은 선생님들이 아니라, 아이들이다.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아이들 때문인 만큼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꽃밭집 역할을 해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리수동산이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가 보리수동산에 대해서 묻는다면 이곳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아끼고 노력하며 생활하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곳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과 생활하는 동안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보리수동산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글 | 前 공익근무요원 강다규



지난 2월 5일, 2년간 몸을 담았던 보리수동산에서의 마지막 출근을 끝으로 나의 공익근무가 끝났음을 자축하며, 지난 25개월의 시간을 회고할 기회를 준 승욱님과 선생님들에게 우선 감사드립니다. 짧지 않았던 지난 시간을 글 한편으로 다 담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지만 나의 필력과 표현력의 한계로 어쩔 수 없었음이 안타깝다. 밑으로 써내려갈 이야기들은 내가 보리수동산에게 받은 소중한 경험과 교훈, 당시에 느꼈던 느낌과 감정들, 그리고 미처 전하지 못한 고마움과 2년의 짧디 짧은 동행에 대한 아쉬움이다.

〈근무를 시작 하며〉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는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우선 공익 생활을 시작하며 가졌던 “편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솔직하게 말하여 나의 근무지가 보리수동산으로 배정됐던 때부터, 첫 출근 이후로도 한 동안 보육원과 사회복지에 익숙해 질 수 없었음을 고백한다. 그도 그럴 것이(라고 쓰고 자기합리화라고 읽는다) 나는 20년을 살아오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적을 두지도 않았고, 학창시절에 으레 하던 사회봉사활동에서도 아무 감흥이나 성의 없이 접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의 공익근무 초창기는 불안과 경계심으로 가득 했었던 것 같다. 익숙하지 않은 성격의 장소와, 나의 유년기와 다르게 자라는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 나를 관리하는 듯한 선생님들까지.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덜 자란 어른이었다. 물론, 이것은 변명이 아니다. 그저,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좀더 다가가지 못했던 그릇된 자신에 대한 반성이랄까...

하나, 몇 달의 적응기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나도 아이들과 얼굴을 트기 시작했고, 보육원에서의 나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곁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조언하고 도와주셨고, 아이들의 도움도 곧잘 받았다. 그러면서 이곳 보리수동산의 생활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보람과 복무에 대한 자부심도 조금씩 자라는 시기였다. 근무 첫 1년간 나는 복지시설의 다양한 업무를 배웠고,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적지 않은 경험도 쌓았다. 아이들과의 여름캠프, 청련암 불교행사, 지역주민과의 화합잔치, 연말송년축제, 겨울김장축제, 방학학습지원 등등. 실제로 몸으로 접했던 보리수동산은 새내기 시절의 불안했던 내 우려와는 완전히 달랐음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내가 보육원을 보며 느꼈던 일종의 거리감은 마치 흐릿한 유리창문과도 같았다. 아무리 깨끗이 닦고 문질러 투명한 창으로 바라본들, 그것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유리창 너머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몸으로 다가가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됐다.

어느덧 2년차에 접하고, 2009년에 접어들어서 나의 공익근무도 상당히 유쾌해졌다. 아! 물론, 아침출근과 “과격하고 중노동의 공익근무”에 익숙해졌단 말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와 공익근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유연해졌음을 내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었다. 동시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각종 Program에 참여하면서 상당한 재미와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지난 여름, 전라도 강진에서 개최한 ‘전국유소년클럽축구대제전’과 지난 1월에 참석했던 ‘덕유산 겨울산행’이 특히나 기억에 남는다. 고생했던 만큼 추억도 남고, 아이들과 함께 떠



흘리고, 선생님들과 도우며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라 감회도 남다르다. 강진 축구대제전의 경우, 근 10여일을 피약벌에서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던 축구팀 아이들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었던 선생님들의 정성, 그리고 본선에서 안타깝게 석패하여 결승 코앞에서 탈락한 아이들의 아쉬워하던 표정과 내 일처럼 안타까워하던 선생님들이 참으로 기억에 남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직도 생생한 겨울산행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설경과, 다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며 올랐던 덕유산 정상은 내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산행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

〈끝으로〉

내게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이 도움이 됐느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말할 자신이 없다. 부디 아이들이 장래에 성장해갈 때 조금이라도 바른 사람으로 커 가는데 보탬이 되었기를 마음으로 빌 뿐이며, 또한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2년 근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승욱스님과 여러 선생님, 동산 아이들까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글을 마치면서 지난 2년에 대한 고마움과 아쉬움을 이 한편의 글로써 접어두며, 부디 보리수동산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옥천사 템플스테이를 다녀와서...

글 | 개천초등학교 5학년 석원진



보리수동산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까지 옥천사 템플스테이 캠프를 하러 옥천사로 갔다. 자방루에 있는 벽장에 짐을 넣고 모두들 티셔츠를 받아서 갈아입고 이름표를 꾸미고 목에 걸었다. 절에 대한 설명도 들었고, 아미타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등등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알게 된 부처님도 계셨다. 옥천사에서는 공양을 먹고 난후에 예불을 올렸는데 예불 후에 자유 시간을 좀 가지다가 장기자랑을 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날에는 아침 식사를 발우공양으로 하였다. 동산에서와는 달리 예불을 할 때 108배를 하였는데 절을 한 번에 많이 하니깐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다. 오전에는 미술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그렸는데 긴 도화지에 한명씩 누워서 그려주고 색칠하는 것을 하였다. 그 후에 상을 주었는데 내가 속한 3조와 6조가 받았다. 상을 받게 되니 기분이 정말 좋았다. 점심을 먹은 후에 다도수업을 하였는데 차 마시는 방법과 차를 만들게 된 유래를 듣고 난후 차를 만들었다. 진짜 차가 아니라 그냥 물이었다. 다도 선생님께서 미안해하시면서 우리에게 연꽃차를 타서 주셨는데 맛이 진했다.

다도수업을 마치고 준비운동을 하고 물놀이를 하였다. 물이 무척 차가웠지만 그래도 즐겁게 친구들과 놀았다. 물에 들어오지 않으려던 선생님들도 어느새 우리와 함께 물장구치며 놀고 있었다. 오후에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나니 무척 피곤하였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 모두 누워서 장난치면서 놀다가 그만 잠이 감겨서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꾸지는 않았지만 해 뜨는 것도 모르고 그만 늦잠을 자버렸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했었던 발우공양을 하였다. 두 번째로 하니 정말 쉽게 되었다. 마지막에 송충을 마시고 그릇을 씻었던 오이를 먹었다. 단무지보다는 괜찮았다.

아침 예불을 올렸는데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108배를 하지 않았다. 어제처럼 쉬는 시간이 끝나자 자방루로 갔다. 그랬더니 책상이 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색연필과 사인펜이 놓여 있었다. 사인펜과 색연필로 만다라 색칠을 하였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색칠을 하였다. 그리고 A4용지에 사회복지사 여선생님, 남자선생님의 장점을 쓰고 나의 장점과 나의 목표를 정확하게 적어서 냈다. 혜성스님께서 내 것을 읽으실 때 나의 장점과 목표를 읽어주셨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나만 선물을 하나 더 받게 되었다. 이유는 내가 2박 3일 동안 활기차게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귀훈 수첩이었다. 내 맘에 들었다.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서 템플스테이 때 한 활동을 잊어먹지 않고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다.

또 나와 친해진 언니, 친구, 동생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나를 도와주었던 친구들이 너무 고맙웠다.

다음에는 내가 친구들을 도와줄 것이다.

함께했던 친구들이 고맙고

캠프가 너무 즐거웠다.

다음에도 가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겠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서..

글 | 개천초등학교 6학년 이상민



오늘은 2009년 4월 5일이다. 이 날은 식목일이라서 나무를 심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보리수동산에는 매년 식목일에는 항상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뒷산과 화단에 나무를 심었다.

오전에 모두가 모여서 정토관 뒤뜰과 주차장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심었다. 지장방과 보현방은 정토관 뒤뜰에서 녹차를 심고, 문수방과 선재원은 주차장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꽃을 심었다. 우리 초등학생은 녹차를 심지 않고 녹차 씨의 껍질을 깐다. 그리고 주차장 앞의 잔디밭에 내려가서 이름 모르는 어떤 꽃에게 물을 주었는데 정말 재미있었고, 계속 주고 싶었다. 비록 물뿌리개는 무거웠지만 물을 식물에게 줄 때는 웬지 모르게 뿌듯하고 재밌었다.

보리수동산에서 이제 녹차, 자두, 체리, 복숭아, 두릅 등을 키운다. 그리고 국화, 들국화, 톨립 등의 꽃도 키운다. 그 열매들이 빨리빨리 자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녹차가 빨리 자라서 우리가 맛있는 차로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러한 여러 식물들을 심은 이유는 이제 우리 보리수동산도 여러 식물들을 키우면서 물을 주는 체험, 직접 열매를 따서 먹어보는 체험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또 식목일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는 이 꽃들이, 이 열매들이 빨리 빨리, 어서 어서 자라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식목일 날 심은 보람이 나도록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바람이 불어 벚꽃 잎 3개를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누군가 해주어서 사실일까 궁금한 마음에 정말로 어제와 오늘, 난 벚꽃 잎 3개를 잡았다.

정말로 내가 비는 소원이 이루어질까? 난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다.

오늘 하루는 새 생명을 만드는 날이어서 정말 보람되고 알찬 하루였다.



디딤 씨앗통장에 대한 교육을 받고나서...

글 | 영천중학교 3학년 김한비



2시부터 시작해서 중, 고생들만 호덕상 감사선생님께 경제교육을 받았다. 경제교육을 받는다는 말에 ‘아 우리가 꼭 들어야겠고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처음으로는 디딤 씨앗통장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여 주었다.

디딤 씨앗통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디딤 씨앗통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돈이 어떻게 나가고 들어오는지 선생님께 들어서 잘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 쓸 수 있는 지는 오늘 알게 되었다. 집을 살 때, 대학에 들어갈 때, 결혼할 때, 자격증을 취득할 때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정말 이 통장이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하였다. 그리고 나서 감사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통장을 나누어 주셨다. 나는 꼬박꼬박 3만원 씩 입금되어 있어 내 통장에는 금액이 2백만 6천원이나 있었다. 통장을 보니 더욱 뿌듯해서 좋았다. 하지만 매달 3만원 씩 입금되지 못한 애들은 90만원 정도 밖에 돈이 들어있지 않아서 내 마음이 좀 안타까웠다.

디딤 씨앗통장에서 18세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차후 내가 사회에 생활하려면 개인적으로 저축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를 풀었다. 나는 교육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던 탓에 문제를 잘 맞추어 사탕도 받았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우리들에게 좋은 내용을 강의해주기 위해 서울에서 고성까지 오셔서 유익한 설명을 해주신 감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만큼 그리고 감사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만큼 디딤 씨앗통장을 가치있게 써야겠다.



베트남 동나이성 청소년과 함께 한 추억...

글 | 사회복지사 황 홍 점



베트남 동나이성 청소년 예술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과 기대가 많이 되었다.

얼마 뒤 모습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게 깨끗한 인상과 함께 밝은 표정을 지으며 우리들과 첫 만남의 시작을 이루었다. 잠깐이지만 원장님께서 우리시설 소개와 함께 환영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교류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곧이어 베트남 동나이성 청소년들과 공연이 시작되었는데 무용을 보며 부드러우면서 화려한 손끝의 의미를 섬세하게 표현한 부조의 전통 무용을 보며 감탄을 하였다. 우리 아이들도 신기하기도 하고 색다른 모습에 관심 깊게 지켜보며 즐겁게 관람을 하였다.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악기도 있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트룽’이라는 악기였다. 이 악기는 대나무 여러 개를 엮어 만든 것으로 처음에는 어떤 소리가 날까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소리가 나올까 하는 호기심으로 들었는데 의외로 맑고 깨끗한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트룽의 반주 “봄보 마을의 절구소리”를 독주로 들으며 베트남의 평화로운 마을을 연상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보리수동산에서는 영남사물과 난타가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공연을 보여주며 우리가락을 소개하는데 서로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 풍물패의 가락소리에는 절제와 힘이 느껴지면서 웅장함을 연상하게 하는 소리였다. 서로 다른 음악세계와 문화와 각 나라 간의 전통 음악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이나마 베트남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고 나라간의 문화는 다르지만 그 또래들의 생각과 열정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교류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나라간의 벽을 뛰어넘는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학습의 장이 되었다. 처음으로 국제간의 교류 사업이 성사됨으로서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국제 교류사업을 통하여 세계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어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이해와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밝은 미래를 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별자리 체험을 하고 나서...

글 | 영천중학교 1학년 어득수



2010년 1월 16일 날 별자리 체험을 하였다.

저녁에 밥을 먹고 강당에 7시에 친구들과 형, 동생들 모두가 모여서 별자리 체험에 대해 설명을 듣기 시작하였다. 지리산 천문대 동아리에서 형과 누나들이 오셔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별들의 탄생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다. 그리고 겨울에 볼 수 있는 별들과 별자리를 가르쳐주시고는 밖에 나가서 미리 형들이 설치해 놓은 천체 망원경을 보자고 하였다.



사실 처음에 나는 별자리가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들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들은 후 밖에 나와서 별자리를 관찰하기 시작할 때까지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저 별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만 알았다. 하지만 서울에서 온 나보다 5살 많은 누나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면서 별을 보여 주셔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책에서만 보았던 별자리를 오늘 몇가지 보게 되었다. 무엇으로 설명하였냐면 레이저 총으로 가리키고 우리들에게 천체 망원경을 보게 하였다. 처음엔 카시오페아, 두 번째는 오리온, 세 번째는 화성을 보여주었다. 설명을 해주신 후 천체 망원경으로 별자리를 더욱 가까이서 보았다.

그런데 옆에서 아이들이 쿵쿵대고 걸으니까 망원경이 흔들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이런 별자리 체험은 정말 처음이었다. 흔들려도 옆에서 설명해주니까 별자리에 대해 알기가 쉬웠다. 카시오페아자리도 무척 신기하였다. 왜냐하면 별자리로 나타난 모양이 알파벳 W와 비슷해 보여서였다. 두 번째는 오리온자리를 보았다. 오리온자리는 카시오페아 모양보다 더 신기하였다. 오리온자리는 사람 모양과 같았다. 전갈자리는 겨울에 보기가 힘들고 여름에 볼 수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화성을 볼 수 있었다. 화성은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것이고 색깔은 주황색이었다. 그 외 시리우스별도 보았고 성운도 보았다. 성운은 별이 부서진 찌꺼리기 모인 것이라고 한다. 천체망원경을 모두 다섯 번 정도 보고 우리는 천문대 동아리에서 오신 선생님, 형, 누나들과 헤어졌다. 무척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신기한 별자리를 가르쳐주신 천문대 동아리 형, 누나들에게 너무나 고맙다.

마지막으로 화성을 볼 수 있었다. 화성은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것이고 색깔은 주황색이었다. 그 외 시리우스별도 보았고 성운도 보았다. 성운은 별이 부서진 찌꺼리기 모인 것이라고 한다. 천체망원경을 모두 다섯 번 정도 보고 우리는 천문대 동아리에서 오신 선생님, 형, 누나들과 헤어졌다. 무척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다. 신기한 별자리를 가르쳐주신 천문대 동아리 형, 누나들에게 너무나 고맙다.



보리수 어울림

글 | 풍물강사 최희중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친지도 여섯 6여년이 흘렀다. 보리수 아이들과의 인연은 말 그대로 인연이라고 밖에 이야기 할 수 없다.

몇 해 전 내 친구가 초등학교 영양사로 있었는데 부모 없이 고아원에 있는 친구가 풍물을 잘 친다고 내 보고 좀 가르쳐 보라고 한 적이 있었다. 고성이라 멀기도 멀었고 한명만 보고 갈 수가 없어 거절 한 적이 있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친구가 있는 곳이 보리수동산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친한 형이 자기가 아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 풍물 좀 가르쳐 주지 않겠나라는 제의가 왔었다. 그때 내가 한 참 바쁠 때라 또 역시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 곳도 나중에 알았는데 보리수 동산이었다. 그리고 또 한해가 지나 평소엔 나에게 도움을 준 형이 고아원 아이들 풍물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또 그 곳도 보리수 동산이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보리수동산에 와서 아이들 풍물을 가르치게 되었다. 지금은 번듯한 건물에 넓은 강단에 풍물악기도 많지만 처음 보리수 동산은 지금에 비하면 사막과도 같은 곳이었다. 아이들 잘 곳이 없어 여관방을 빌려 잠을 자는 형편이 있었는데 연습할 공간이며 악기가 제대로 갖춰있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원장님 이하 보리수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고, 그 열의로 아이들에게 풍물을 가르치게 되었다. 지금은 보리수 하면 풍물. 풍물하면 보리수이지만, 풍물과 보리수와의 인연되기도 쉽지만은 않았다.

인연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다. 인연은 우연히 다가오기도 하지만 보리수 풍물처럼 여러 사람들의 관심과 아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보리수 아이들과 풍물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청소년 시기는 불과 같은 시기이다. 불처럼 발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나 안 좋았던 부분을 풍물을 치면서 많이 발산되고 기분이 풀리는 게 아닌가 싶다. 특히 보리수 아이들은 보리수 선생님이 잘 해 주어도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사랑이 뼈뼋어진 행동으로 표출 될 수 있다. 그 시기에 풍물을 치면서 기분을 풀고 또 풍물로 쌓인 스트레스는 여러 대회에 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둬들여 풀려던 게 아닌가 싶다.

보리수가 이렇게 풍물로 알려 지게 되면서 주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보리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는 한반에 반 이상이 보리수 아이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렇게 보리수가 풍물을 잘 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도 풍물을 치게 되었는데 그해에 고성군 초등학교 풍물 대회에 나가 1등을 하였다. 그리고 각



시, 군에서 1등한 친구들이 모여 경상남도 대회를 하였다. 보리수가 속해 있는 개천 초등학교는 그 대회에서 앞은 반 최우수를 받게 되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이 날 꼴이었다. 초등학교에서 풍물을 가르칠 때 보리수 아이들의 역할은 아주 컸다. 잘 치는 친구들이 있으니 못 치는 친구들도 잘 치는 친구들을 보고 근방 실력이 늘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러 이제는 고성에서 풍물하면 개천 초등학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중학교로 가서 중학교도 풍물반이 생기게 되었고, 중학교 풍물 대회에 나가서도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아마 이대로 몇 해만 더 한다면 고성군에서 개천면이 풍물로 유명한 곳이 될 수 있겠다 싶다.

보리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고마워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 보리수에서는 풍물 말고도 여러 가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걸로 알고 있다. 아이들은 그렇게 배우는걸 아무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고마워하는 마음이 잘생기지 않고, 그 만큼 의욕도 약해지기 쉽다. 지금 당장 의욕이 약한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대로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사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사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보리수처럼 쉽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게 아니다. 그렇게 풍물을 친다면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풍물을 배울 때에는 조금 엄격하게 가르치는 면이 있어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해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 싶어 무조건 좋게 좋게만 하지 못하는 마음도 알아 줬으면 한다.

그 동안 보리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많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리수 아이들과 알게 되어 보람된 일이 더 많았다. 보리수와의 인연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참 좋은 인연이라고 말하고 싶다.



산청 경호강 레프팅을 다녀와서

글 | 개천초등학교 5학년 석원진



산청에 레프팅을 가는 날이다.

매년 여름이면 가는 레프팅이지만 항상 물에 빠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인 유경이가 무섭지 않다고 계속 일러 주어서 조금은 기분이 괜찮아졌다. 사실 타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뒤집기 할 것 같아서 무서웠던 것이다. 강을 따라 가다가 갑자기 배를 뒤집기하면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못 빠져 나올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온 몸이 오싹했다.

열심히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점심시간이 되어 도착을 하였다. 나, 유경이, 정화선생님,

영환이 오빠 등 안양원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3조가 되었다. 우리조의 조장이 제발 여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에이 설마... 여선생님이 계실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3조 선생님께서는 정말 여선생님이셨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구명조끼와 안전모를 쓰고, 안전도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차고, 자기 배로 갔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체조로 PT체조를 9회를 하고, 토끼팀 8회를 하고 나서 물에 들어갔다. 다행히 물이 차갑지는 않고, 물 속이 따뜻했다. 몸에도 물을 다 적시고 보트에 타서 발을 발걸이에 끼우고 노를 단단히 잡고 달렸다. 가이드 분께서 하나 둘하면 우리는 셋, 넷을 하였다.

가던 도중에 물살 치는 곳이 있었다. 그때는 노를 젓지 않고, 그냥 타고 있었다. 그랬더니 저절로 떠내려갔다. 두 번째 물살 치는 곳에서는 우리 3조의 보트가 돌에 걸려 회전하였다. 내려가다가 계속 돌에 걸려서 회전하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쉬어 가는 곳에 도착하였다. 나에게는 조금 깊은 물이었지만 들어가서 한창 개헤엄도 하면서 유경이와 재미있게 놀았다. 이제는 모든 조가 다 모여서 보트를 타고 또 내려갔다. 3조는 마음이 딱딱 잘 맞아서 보트가 아무런 결함없이 잘 내려갔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2조를 만나서 함께 가게 되었다. 갑자기 2조가 돌에 걸려 못 빠져 나오자 우리도 함께 돌에 걸리게 되어 같이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다행히 잘 헤쳐 나와서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보트를 이용하여 재밌게 다이빙을 하였다. 우리 조 미너 가이드 언니와 2조 가이드 오빠가 함께 우리들에게 먼저 시범을 보이고, 안양원 오빠들은 서로 할 거라며 싸우다가 줄을 썼다. 나와 유경이는 그냥 다이빙을 안 하고 헤엄을 쳐서 나왔다. 레프팅이 끝난 후 봉고차를 타고 우리는 산청 온천 랜드로 가서 모두 열심히 땀 밀고 깨끗하게 씻었다.

정말 오늘 하루는 지금까지의 레프팅 경험 중에서 최고로 즐겁고 재밌었던 날이다.

내년에도 봉사자들과 친구들과 함께 다시 왔으면 좋겠다.



대구 허브힐즈를 다녀와서

글 | 고성고등학교 2학년 신영미



오늘은 대구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인 허브힐즈로 나들이를 갔다. 원래 나눔의 향기 봉사자 분들은 중학교 2학년들과 3학년들만 데리고 갔는데, 특별히 오늘 하루는 한비가 집에 가는 바람에 대신 가게 된 일이었다. 미리 난 내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에서 허브힐즈에 대해 찾아보았다. 인터넷에 소개된 사진으로는 정말 아담하고 예쁜 마을처럼 보였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깐 약간 언덕 쪽에 있어서 그런지 경사가 높았다. 그래서 조금 걸어 다니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정말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

져 마치 장난감 나라에 온 것 같았고, 모든 곳이 아름다워 보였다. 슬기와 나는 박정민 아저씨랑 파트너가 되어 이곳저곳을 다녔다. 처음에 허브 마을에 갔다. 달콤 짭작한 허브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그리고 슬기랑 허브샵에도 갔었는데, 슬기는 감기가 걸려서 향기가 맡아지지도 않았는데 그 곳에 가보니까 코가 뻥 뚫릴 만큼 향기가 났다고 한다. 그곳에는 특이한 물건들이 많이 팔고 있었다.

두 번째로 애니멀 쇼를 보러 갔었다. 물개 민국이가 쇼를 보여주었다. 중간 중간에 기니피그와 돼지, 원숭이들이 나왔었다. 정말 귀여웠다. 그리고 쇼가 끝난 후 동물원에 가서 각종 동물도 보았다.

그리고 운제현이라는 곳에서 쉬고 난 뒤 문패 만들러 갔었다. 나는 '열공중'이라는 틀로 만들었다. 단순했지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문패 만들기가 끝난 후 우리들은 나향 봉사자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좋은 곳을 소개해주신 나향 봉사자들에게 감사했고, 내일이 학교가는 날인데도 저녁까지 잠이 안 와서 신기했다.





밀행제일密行第一 라훌라존자(Rahula, 羅喉羅)

글 원각스님

이번 호에는 싯다르타 태자(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전 왕자 때의 이름)의 아들로서 출가하여 최초로 사미가 된 라훌라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훌라 존자는 부처님의 십대제자로서 남이 보든 말든 묵묵히 실천 수행하는 밀행제일(密行第一)로 불렸습니다. 중아함경에 나타난 라훌라 존자에게 내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한명의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훌라존자가 있는 왕사성 온천림에 방문하셨을 때의 일화입니다. 존자 라훌라는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곧 마중 나가 부처님의 옷과 발우를 받고 방석을 깔고 물을 길어다 발을 씻어드렸다. 부처님께서 발을 씻은 뒤 라훌라의 자리에 앉으셨다.

세존께서는 곧 물그릇을 잡아 물을 조금 쏟고 나서 물으셨다.

"라훌라아, 너는 지금 내가 이 물그릇을 잡아 물을 조금 남기고 쏟는 것을 보았느냐?"

라훌라가 대답하였다.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저들"의 도가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른바 저들은 알고 나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며, 안으로나 겉으로 부끄러워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라훌라아, 저들은 또한 악이라고는 짓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라훌라아, 마땅히 이것을 배워 실없이 웃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세존께서 다시 조금 남은 물그릇을 잡아 모두 쏟아 버린 뒤에 물으셨다.

"라훌라아, 너는 또 내가 조금 남은 물마저 모두 쏟아 버리는 것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저들의 도가 다 버려졌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른바 알고 나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며, 안으로나 겉으로 부끄러워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라훌라아, 저들은 또한 악이라고는 짓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라훌라아, 마땅히 이것을 배워 실없이 웃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세존께서는 다시 그 빈 물그릇을 잡아 땅에 얹어 놓은 뒤에 물으셨다.

"라훌라아, 너는 또 내가 빈 물그릇을 땅에 얹어 놓는 것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저들의 도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른바 알고 나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며, 안으로나 겉으로 부끄러워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라훌라아, 저들은 또한 악이라고는 짓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라훌라아, 마땅히 이것을 배워 실없이 웃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1) 특정지을 수는 없으나 외도 수행자로 보임



세존께서는 다시 그 엮어진 물그릇을 잡아 위로 향하게 해 놓은 뒤에 물으셨다.

"라훌라아, 너는 다시 내가 엮어진 물그릇을 잡아 위로 향하게 한 것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내가 저들의 도가 위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른바 알고 나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으며, 안으로나 겉으로 부끄러워함이 없기 때문이니라. 라훌라아, 저들은 또한 악을 짓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라훌라아, 마땅히 이것을 배워 실없이 웃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 중략...

그리고 세존께서는 곧 계송을 설하셨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바로 법 하나를 범한다 하나니
뒷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
악이라고는 짓지 않는 것이 없네.

차라리 불같이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지언정
계율을 범하면서
세상의 신심 있는 보시 받지 않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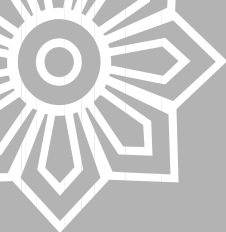
만일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애념(愛念)하지 않으려면
은밀한 곳에서든 드러난 곳에서든
나쁜 업 짓지 말아야 하네.

만일 선(善)하지 않은 업(業)을
과거에 지었거나 현재에 지었다면
끝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며
또한 피할 곳도 없으리.

일반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이 상황은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겨드린 후에 훈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처님과 라훌라의 관계는 출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 일화를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위대한 스승이며 많은 제자를 거느린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 라훌라의 입장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교단의 화합과 자신의 수행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으로 부터 남들에게 베풀어 지지 않은 특별한 가르침(秘意)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허물을 잘 관찰하고 다만 모두에게 가르치신 것에 따라 수행을 꾸준히 해나갔을 따름입니다.





Ⅱ 동시 모음 (보리수 백일장 수상작) Ⅱ

| 초 | 록 | 연 | 시 |



개천초등학교 4학년 김신

코스모스

코스모스를 보니 가을이 생각난다.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코스모스가 춤을 춘다.
보리수 앞 마당에서 있는 꽃

내 기억엔 가져오는 장난감
로즈마리같이 향기롭고
줄기가 닮은 꽃
코스모스, 힘은 약하지만
아름다운 꽃
감나무 밑에서 있는 꽃

코스모스야 코스모스야
너는 왜이리 아름다울까
너는 참 아름다운 꽃
코스모스야
너는 너무 아름다운 꽃이야



고성고등학교 2학년 신영미

코스모스의 희망

파란 하늘 아래에서
자기네끼리
옹기종기 모여 하는 말들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

겨울이 오기 전에
더욱더 재잘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수 밖에

아침이 오면
점점 추워지는
너희의 세상에
불은 붙여주고 싶다.



개천초등학교 4학년 박지환

자비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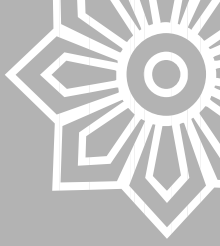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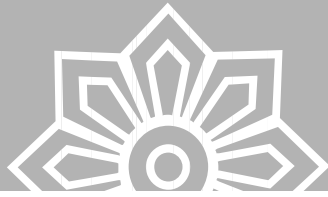
행복하고 자비로운 나라
아름답고 씩씩한 동물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들
꽃도 키우니 향기로운 향기가 난다.

그 나라가 지구 안의 나라이다
행복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꾸중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고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다

나도 꿈나라로
자비의 나라로 가서
자비를 베풀 것이다





개천초등학교 4학년 유승영

자비의 나라

자비의 나라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나라

칭찬 듣고
꾸중 듣고
그래도 행복한 나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한 나라

자비의 나라에 사는
나는 정말 행복하다.



고성고등학교 1학년 김성일

교과서

새 학기 첫 날
어김없이 나누주는 교과서

처음엔 그저
막막한데

하나 둘씩
배워나가면

조금씩 이해가 되고
친구처럼 친해지다가
학기 말에 헤어지는
쓸쓸한 종이 뭉치

만나고 버림받음을
수없이 반복한 그를

우리는
교과서라 부른다.



영천중학교 1학년 김효림

다가오는 새학기

시간은 쏜 호살과 같다.
지난 6년간의 초등학교의 기억
입학한 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시간은 금이다.
엮혀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시간도 되돌릴 수 없다

내가 한 일에 후회 없도록
초등학생의 허물을 벗고
중학생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지.

조금씩
다가오는 새학기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다가오는 새학기를 맞이하자.



힘들지만 보람된 덕유산 산행을 다녀와서..

글 | 영천중학교 2학년 신경이



새벽 3시 반부터 일어나 덕유산에 갈 준비를 했다. 그곳의 날씨가 추울까봐서 옷을 몇 겹이나 겹쳐 입고 양말도 여러개 신었다. 그리고 선재관 앞에 모두 모여서 조별로 인원 및 장비를 체크를 하고 버스에 타서 덕유산으로 출발하였다.

무주에 도착하여 아침 6시 반에 조별로 밥을 먹고 조금 휴식을 가지고 난 후 덕유산을 향해 올랐다. 덕유산에 가는데 1시간 30분정도가 평평한 도로 길이었는데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다. 도로를 계속 걷자 “백련사”라는 절이 나왔다.

백련사 약수터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안전하게 산행을 마치기를 빌며 절을 하고, 본격적으로 다시 산을 올랐다. 다행히 덕유산은 작년에 갔었던 소백산보다 덜 추워서 좋았지만 긴 도로 탓인지 오히려 더 힘들게 느껴졌다. 게다가 산을 오르는데 왜 이리 배가 고프지... 정말 끊임없이 간식을 먹으며 걸었다. 우여곡절 끝에 덕유산 정상에 도착해 사진을 찍고 대피소에 가서 라면하고 주먹밥과 간식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컵라면 중 그렇게 맛있었던 적은 처음이었다.

점심밥을 먹은 후 산을 내려오는 중에 약간씩 비와 눈이 섞여서 왔는데 그로인해 땅에 있던 눈이 얼어 산을 오를 때 보다 내려오는 길이 미끄러워져 위험하였다. 내려오는 길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에 너무 힘을 주었던 탓인지 발목이 너무 아파서 착용하고 있던 아이젠을 풀었는데 정말 편하고 좋았다. 그로부터 한 시간 뒤 백련사에 도착을 하였는데 우리 9조가 제일 빨리 모여서 가장 먼저 하산을 하였다. 내려가는 중에 먼저 갈려고 뛰다가 얼음길에 넘어지고 다리가 뭉쳐서 너무 아팠다. 하산이 임박해지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차라리 비보다는 눈이 오기를 원했다.

이번 산행은 생각보다는 힘이 많이 들었지만 날씨가 따뜻해서 좋았고, 눈이 별로 내리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보람은 있었고, 덕유산은 다른 산보다 경치가 정말 좋았다. 올라가는 길에 무주 리조트가 보였고, 위에서 아래를 보니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다. 중간 휴식처였던 백련사라는 절도 정말 좋았다. 이 모든 추억들은 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 같다.

2010년 1월 27일



덕유산을 다녀와서..

글 | 영천중학교 3학년 최성진



우리들은 덕유산 겨울 산행을 하기위해 출발 당일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전날 저녁에 산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내 놓았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는 간단한 점검만 하고 선재관 앞에 집합을 하였다. 출발하기 전 산행에 참가하는 인원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한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 무사히 멋지게 다녀오자는 굳은 각오를 하며 버스에 탑승하여 덕유산으로 출발을 하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인지 몸은 많이 피곤하였지만 덕유산 산행에 대한 떨리고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가는 동안 잠이 오질 않았다. 그렇게 약 2시간정도 이동한 후 드디어 덕유산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다. 우리는 아침공양으로 따뜻한 밥과 국물과 여러 가지 반찬을 함께 먹으며 든든히 배를 채우고 출발 전 인원 점검을 하고 덕유산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하는 생각에 가슴은 더욱 조여 왔고, 마음은 더욱더 설레었다. 그렇게 조이는 가슴을 움켜쥔 채 약 1시간 30분 동안 걸었다.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곳이 백련사라는 절이었다. 우리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허겁지겁 약수터에 달려가 신선하고 맑은 물을 한바가지 시원하게 쭉 들이켰다. 산행 중 먹은 물이라서 그런지 아주 시원하고 달콤했다.

그 후 백련사 법당에 들어가서 삼배를 부처님께 올렸다. 그렇게 행복했던 휴식을 마치고 다시 산행을 시작하였는데 방금 전까지 걸어왔던 포장된 길과는 달리 정말 좁고 험난한 산길이 나왔다. 지금껏 눈이 많이 왔던 곳이라 길에 눈이 녹아서 얼음이 되어 매우 미끄러워서 우리들은 모두 아이젠을 착용하였다. 아이젠 밑바닥이 얼음에 한걸음 한걸음 박히면서 나는 정상을 향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올라가는 길이 정말 끝이 안보이고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다가 3시간이라는 긴 시간에 거쳐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덕유산 정상에 도착을 하였다.

정상에 도착하니 우여곡절 끝에 큰 소원 하나를 성취한 것 같이 느껴졌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치의 느낌은 꼭 끝없는 바다를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넓은 바다를 모두 가진듯한 기분이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에 걸친 구름을 보니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아름다운 그 풍경이 그런 나의 속마음을 달래 주기도 하였다. 그날 덕유산 정상은 모두 내가 정복한 나만의 넓은 안식처 같이 느껴졌다. 덕유산 정상 위에서보니 무주 리조트라는 스키장이 보였는데 코스가 상당히 길어보였다. 지금껏 한 번도 스키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족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오고 싶었다. 저 밑에서 학교 동창, 여자 친구, 가족들과 함께 자유롭게 스키를 타며 뽀뽀 달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내 마음이 뽀 뽀리는 것 같이 시원하였다.

그렇게 아름답고 끝없이 넓은 정상의 풍경을 모두 감상하고, 준상이 형과 인한이 형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삼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기념사진도 몇 장 찍어 추억을 남기고, 하산하는 길에 잠시 대피소에 들러 각자 컵라면 하나와 미리 준비해온 주먹밥 하나씩과 김치를 먹으며 정상 바로 아래서 잠시 허기를 달랬다. 힘든 산행 뒤에 먹는 라면 맛이 최고인 것 같았다. 그때 그 순간만큼은 내게 그 라면은 어떤 비싸고 맛있는 음식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음식이었다. 비록 컵라면 하나였지만 맛있게 먹고 힘내서 다시 일어서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이 버겁고 멀게 느껴져 힘들었지만 이 높은 산을 내가 많은 고난을 이겨내며 정상에 도착하였다는 것에 뿌듯한 마음을 되새기며 하산을 하였다. 한 참 내려오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지만 걸음을 조금 서둘러 걷다보니 어느덧 버스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착을 하였다. 드디어 오늘의 산행을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하고 기뻐다. 버스에 탑승한 후 인원점검을 하고 출발을 하여 저녁 6시쯤 보리수동산에 도착하여 나의 하루를 되돌아보니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았고 멋지고 보람찬 하루가 되었던 것 같다.

2010년 1월 27일



2010년 새해 보리수동산 동생들에게 보내는 간절한 마음

글 | 퇴소아동 김종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어느덧 형이 퇴소한 지 1년이 넘었구나. 너희들에게 조금이나마 세상 사는데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지금껏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너희들한테서 진지함을 볼 수 없는 것 같아 나중에라도 이 글을 보고 한번쯤 생각해보고, 훗날 너희들이 해야될 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성공을 바란다면 사람이 먼저 되어 된다는 생각을 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구나.

형이 보리수동산에서 퇴소하고 난 후 효성중공업 전력PU AS팀에서 선배들이 진짜 많이 아껴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 난 어릴 때부터 혼자인 시간이 많아서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단다. 난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생각 하다가 어느새 난 내 머리 속에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지금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알았단다. 그래서 결국 난 잠시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단다.

그 이유는 내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창원시립도서관에서 한달 간 책을 읽고,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보리수동산에 원명스님과 대화를 해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형이 하는 고민들을 꼭 보리수동산 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너희들도 지금 느낄 수도 있지만 세상 살아가다 언젠가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다. 만약 진짜 정말 하고 싶는데 진짜 가지고 싶는데 진짜 해야 되는데..... 이거해야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구나.

일단 너희들이 세상에 나와 돈 벌기를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다면 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구나. 세상에는 진정 니가 할 수 있는 일, 원하는 일이 많이 없을 것이고, 돈 버는 것이 성공의 목적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인 것 같구나. 니가 돈을 벌다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다짐이 흐려지면서 일심이 흔들리면 크나큰 후회를 부를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절대로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실패로 인한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또 가족들에게 미안한 감정조차도 이겨내야 한단다. 니가 하고 싶은 일, 꿈은 정공법으로 다가서고 돈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성공한 사람은 꿈을 보고 실패한 사람은 돈(물질)을 보기 때문이란단다. 그 사실을 난 이제야 알게 되었지만 너희들은 보리수에 있는 동안 선생님들과 큰스님, 원명스님에게 인격, 도덕, 확고한 자기철학. 자아를 알고 세상에 나선다면 세상에 나서는 순간 이전과 다른 세상이 보일 것이라 나는 생각한단다. 긍정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해준단다. 이 세상에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 생각되는구나. 너희들이 보리수동산에 있는 동안 위에 말한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꼭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와 너희들이 원하는 더 큰 세상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구나.

끝으로 책과 멀어지지 말고, 항상 이타적인 삶과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스님에게 많은 질문을 해서 견문을 넓혀서 사회로 나왔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나의 진심이 꼭 잘 전해져서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구나. 나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것이니 너희들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길 바랄게.

새해 하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고, 건강하기를 바란다.

2010년 1월 9일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종진이형이...



▶ 신종플루 유행과 마늘이야기◀



글|영양사 이숙진



작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이 되어 모두 전전긍긍하면서 손 씻기 등 주위환경 위생청결 등 홍보가 마스크를 타고 하면서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마늘을 이야기해 볼려고 합니다.

동산의 친구들은 음식에 마늘을 넣으면 좀 싫어하더군요. 특히 삼계탕에 통마늘을 넣으면 물경거리고 냄새나고 이상한 맛이라고 모두 가려내고 음식을 먹곤 했죠. 그 마늘이 냄새만 빼고, 100가지 효능이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마늘을 일해백리(一害百利) 또는 무해백리(無害百利)라고 했습니다.

마늘의 가장 큰 효능은 면역력, 저항력 강화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페니실린보다 강한 항균작용을 하고 vitB1은 진정효과와 피로할 때 자극과 영양을 준답니다. 그 농도를 12만 배로 묽게 해도 결핵균 디프테리아균 이질균 임질균 등에 효과적일 정도로 강력하답니다.

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감기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의 힘을 약하게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이 맑아지고 체액이 활성화돼 체내 노폐물 대사가 활발해져 축적된 체지방이 빠지므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늘의 단점은 냄새가 나고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위 점막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생마늘 섭취는 제한해야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고기, 우유 등)이 마늘의 강한산성을 흡수시켜 냄새가 덜하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섭취해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동산에 있는 친구들 편식을 하지 말고 모든 음식들이 약이 되고, 식이 되니 골고루 먹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





2009년 3월 14일 거창 가남정보화마을에서 모두 맛있는 딸기를 듬뿍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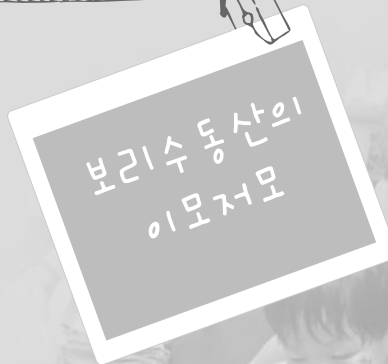
2009년 5월 5일 두산중공업 어린이대축제에 참가하여 열심히 글을 쓰고 있어요.



딸기밭에서 딸기도 많이 먹고, 남은 딸기로 인절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



어린이날, 놀이기구 위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즐겁게 놀고 있는 민승이랑 유영이. 남매는 용감했다~



2009년 4월 12일, 대구에 있는 허브힐즈에서 향기로운 봄에 취했습니다.



2009년 7월 20일, 파라미타 여름캠프에 중학생들이 참가하여 신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의 기운을 받고 왔습니다.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참 좋은
인연입니다!



2009년 8월 8일 드라마 '토지'의 촬영 장소인 하동의 최참판댁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여름날의 추억을 쌓고 돌아왔습니다.



2009년 5월 23일 꿈나무예술제에 작년 대상 팀으로 초청되어 우리 아이들이 예술제의 오프닝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2009년 8월 23일 여느 해와 다름없이 산청 경호강에 봉사자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레프팅을 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2009년 4월 5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치고자 선생님들과 한 마음으로 화단에는 꽃을 심고 뒷 산에는 나무를 심는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지난 가을, 우리 풍물패와 선생님들, 아이들이 모두 모여 운동장에서 신나게 대동놀이를 한 판 벌였습니다.



2009년 9월 19일, 우리 보리수동산도 세계적인 문화 교류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로 베트남 동나이성에서 오신 청소년 교류단과 함께 공연을 하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뜻 깊은 날이었어요.



가을에 있는 국술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의 능글한 모습이랍니다.



경남대 형들과 누나들이 가르쳐주시는 영어 수업에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우리 보리수동산 전 가족이 모두 소백산 비로봉에 발자취를 남기고, 겨울 산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매년 가을에 있는 소가야문화제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열심히 상모를 돌리며 연습에 매진하는 풍물패 아이들이랍니다.



2009년 9월 27일 서울에서 잘생긴 강사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2009년 8월 3일 보리수 만행들이 산청에 있는 삼성궁에 가서 우리 선조들의 숨결을 느끼고 왔습니다.



지난 뜨거운 여름, 우리 꼬맹이들부터 어른같이 든든한 고등학생들까지 모두 인근에 있는 물놀이장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2009년 1월 1일, 매년 새해 첫 날이면 어김없이 해맞이 산행을 떠난답니다. 올 해는 소고산 정상에서~



강당에서 열심히 무용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며 재밌게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꼬맹이들.



장래의 영화 감독이 될 아이들이 모두 모여 영화 선생님께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잠시 쉬는 동안 카메라를 향해 찰~~~각!



매주 목요일 저녁, 중학생 이상 영어에 관심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대학생 봉사자들과 심층 영어 수업을 합니다.

보리수동산의
이모저모

참 좋은
인연입니다!



준상이와 진우, 미키마우스 형이랑 함께 승리의 브이~~~~~ㅋ



2009년 3월 28일 코오롱 마라톤 대회에 우리 박용환 아들이 참여하여 최선을 다한 경주를 펼쳤습니다.



2009년 4월 4일 공룡엑스포 기념음악회에 참석하고 모두 모여 공룡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2009년 7월 어느날, 밴드부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는 준상이, 곧 기타를 마스터할 것 같군요~



2009년 10월 2일 추석맞이 송편 빚기를 우리 문수방 아이들과 조리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매달 둘째주 토요일마다 원어민인 마이클이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회화 수업을 하고 있어요.



2009년 11월 15일,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라인 강습(목천사 주자장)입니다.



2009년 12월 19일 김장체험을 중학생 이상 아이들이 모두 참여하여 김치를 직접 만들어서 먹는 기회를 가졌어요.



강당에서 강사님과 우리 서예부 아이들이 멋있게 붓글씨를 연습하고 있네요.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Ⅰ 2009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 내역 Ⅰ

2009년 1월 강옥환 이지현 박국원 호전종합건설 김석순 김택상 변재범 김재호 윤석근 황종관 주영선 허성란 허종개 배상림 김중복 강정덕 신창환 김대수 성명숙 김주성(온산) 이현숙 이창식 한판현 이상근 김보열 윤복연 허혜자 김현섭 김소연 구미자 김향숙 김정자 김수동 김재룡 조정남 남태석 강진열 고난조 원혜정 김진환 강대균 성우근 김유식 이상개 박재홍 이춘달 정정자 이계숙 서도순 김용진 홍순화 객산자 김연순 강순자 성영래 이상태 이숙이 문미경 한학조 하부영 김석연 김순희 최영희 이우호 박종식 최윤경 김수동 유석열 남정원 강현성 박묘선 김정재 성양원 권종영 윤진란 전억수 남정숙 오현숙 조점이 서진호 서양순 방이호 조계옥 김순점 온도석 이향래 김인호 홍세표, 김애용 이수찬 박노정 장인옥 이미영 김민호 사랑자비 박보영 백장흥 김옥화 김현석 최상률 변인섭 GIA 황정숙 김옥진 허광도 강필환 이두래 박연운 정정순 이미애 정재근 황진선 양유경 민영인 김창자 권외숙 안재현 남정우 김민강 홍정숙 이종원 이원호 거성실업 이영자 최인미 이경순 양홍기 여연이 김복선 홍은정 주신옥 이창훈 장홍점 한국산업 정영숙 정지숙 손윤기 백영현(고성읍) 안규철 김경남 최재섭 양미모 김설영 객은영 김정옥 이상근 문은자 김복희 최연익 김현주 박철홍 박정숙 이한준 박정숙 남경남 제낙을 김무립 장영수 박경애 최홍래 문갑례 김철영 박향진 윤상일 진순옥 김영완 전부근 보리암 조현점 이재동 윤원준 최연경 박철용 객진종 박형목 강명자 권현옥 심영아 정정숙 백승자 황미화(온산) 김성호 이순복 제금자 장형선 김옥순 김명애 국제화공약품 강신출 이영숙 최진호 이희연 전법사 정상용 양채심 조재영 명곡목재 박종근 양승원 서기석 반성관음사 김미자 강규연(뿌지) 이상흠 이미경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조재경 동명특수강 강쌍범 백명민 이엠코리아(주) 박종선(마산) 김보열 하정자 생활선원 박종문 최성락 봉림중학교 치마저고리 이영미 박종태 김문향 김태형 임재민 불심회 (마산교도소) 김상진 한선희 이상백 정성청 이용성 천필남 배진성 구정숙 조지영 박영옥 배청자 박복돌 정창민 이성인 전경도 고옥희 김수현 박경숙 윤소옥 김오수 이문희 박진아 공인배 법우회 이정숙, 이미숙 김문기 김순권 이수미 송외순 원찬섭 (유)대보 임화연 강효상 허귀임 제성호 객진종 이용진 팽정옥 이수미 강옥중 안중언 이철은 박미선, 최옥림 이태호 김금자 이영자 불명 엄영근 무주사 한두련 강도식 홍세표, 김애용 김만식

2009년 2월 강옥환 변인섭 강진열 이숙이 김정자 박종식 양미모 김정재 김민강 김경남 김순화 서충무 허성란 문미경 조정남 윤진란 김창자 하부영 전억수 김석순 박철홍 강신출 배종화 황진선 황정숙 박경숙 김옥진 이한준 김용진 신창환 이두래 윤정자 김문향 박동준 윤복연 배상림 윤석근 홍은정 이경순 이재동 허광도 박정숙 보리암 구정숙 조동화 이계숙 문경련 조점이 이현숙 주신옥 윤상일 안재현 박보영 이순복 이명덕 한판현 배경조 남정원 박노정 이현숙 김복희 서도순 안규철 김소연 진순옥 이영숙 손혜숙 이지현 서양순 거성실업 김연순 손윤기 고난조 강필환 남정우 변재범 김태형 오현숙 박국원 김향숙 문은자 최인미 홍정숙 박경애 김현주 김순희 김철영 조지영 이상태 김보열 김정옥 정지숙 정영숙 김택상 김명순 김현섭 이창훈 전부근 김화수 박재홍 심영아 제낙을 장영수 민영인 김민호 최연익 여연이 김진환 홍순화 조원익 김재룡 정정자 유석열 이우호 양유경 김인호 방이호 강정덕 백승자 한판현 조필준 김수동 장인옥 이춘달 김무립 이상근 박묘선 이종원 원혜정 성양원 최미영 조성진 호전종합건설 서진호 허종개 김옥화 이미영 김석연 최홍래 이미애 김복선 허성란 김재현 이수찬 한학조 김중복 이향래 황종관 사랑자비 김현석 최연경 조현점 김순점 주영선 강현성 남태석 이상근 정정순 허혜자 조계옥 이미애 문갑례 김성호 김설영 정인숙 양희자 정유지 김기석 최인남 최인남 조병언 김계숙 최경례 강규연(뿌지) 최성락 김정숙 김진영 신현석 박세진, 박세철 윤상순 윤상순 박병규 박성용 불명 불명 이상흠 이두리 정창민 조재영 왕한석 김명애 이상백 천필남 김문기 김극일 김지현 정숙자 윤이리 박철용 조재경 김옥순 (주)케이티프리텔 이영미 고옥희 강효상 김오수 김동근 이원형 김승선 김중선(제이에스무역) 장형선 명곡목재 최상숙 정성청 이문희 공인배 제성호 객진종 이철은 조성원, 조희나 박종문 동명특수강 정순자 박종근 전경도 원찬섭 임화연 법우회 만일봉사회 강옥중 최윤경 제금자 하현갑 치마저고리 강쌍범 이성인 김수현 소년복지원 안중언 수효정사(부산) 공남이 이창식 양채심 한선희 강명자 이미경 이용성 하정자 이희연 박영옥 최진호 한두련 기선권현만수협은행 이영자

2009년 3월 강옥환 박연운 강현성 정귀남 김향숙 윤진란 고난조 최홍래 사랑자비 조현점 이순복 온도석 배종화 변인섭 김보열 강진열 김옥진 김창자 최연익 방이호 이창훈 변재범 백장흥 김재호 김대수 정정자 윤석근 허혜자 손윤기 이미애 안규철 백승자 진순옥 권종영 정정숙 황진선 한학조 제낙을 최인미 김복희 김현석 김현섭 남정우 김철영 최영희 박향진 이계숙 장인옥 김정옥 정영숙 홍정숙 이종원 신창환 성양원 이지현 손혜숙 김복실 윤복연 서진호 유석열 이상근





2009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 내역

주신옥 김민호 김현주 김순희 홍순화 객선자 오현숙 배경조 서양순 이춘달 이현숙 하부영 김인호 여연이 김소연 김설영 강대균 이상태 박국원 남태석 이상근 이영자 박경애 전역수 안재현 김진환 김민강 성명숙 김종복 심영아 황정숙 조정남 이미영 이한준 박묘선 서기석 박보영 윤정자 최재섭 호전종합건설 박노정 문미경 박치훈 양유경 윤상일 김정재 허광도 김성호 강순자 구미자 김재룡 거성실업 강순자 김말순 황종관 이재동 김석연 강필환 박철홍 성명숙 김주애 한은주 문은자 문경련 허종개 박종식 김용진 조계옥 문갑례 서영문 한선희 박정숙 박재홍 김무립 배상림 이숙이 양미모 박순자 김택상 최연경 강정덕 박철용 박동준 김수동 김옥화 남정원 박경숙 이경순 서도순 박종선 이두래 원혜정 박종문 조동화 이수찬 성우근 민영인 조점이 배종화 김연순 황상규 박정숙 보리암 제금자 윤원준 객선자 이용호 백장홍 김유식 조동화 김명순 김태형 박영옥 김순점 김중선 구미자 최재섭 정지숙 손혜숙 한판현 박동준 강신출 함안무학사 이희연 세진암관음회 최성락 김대수 김주애 정정순 홍은정 박향진 전부근 김순화 최진호 하정자 홍명옥, 진성우, 채순희 양채심 권종영 온도석 장영수 박연운 정정숙 정성청 김문향 강효상 강규연(뿌지) 이상흠 봉림사관음회 박정숙 최영희 김정자 윤원준 김재호 전경도 구정숙 공인배 윤순옥 이미경 송상훈 강대균 조재경 이항래 치마저고리 김복선 고옥희 이영숙 임화연 팽정옥 정창민 김순화 이용진 이수미 최중웅 강명자 이영미 천필남 김오수 노주현 허귀임 왕한석 이홍열 박진아 이수미 제일나 노텍(이현) 강쌍범 이상백 이문희 장형선 송현도 김순권 안중언 이홍열 팽정옥 허귀임 김옥순 박종근 김수현 원찬섭 최종웅 제성호 이수미 백영민 김승선 김순권 (주)동명특수강 명곡목재 송광섭 이성인 (주)동강 김극일 법우회 이수미 정인숙 정병하 조재영 정동희 정순자 이창식 이용성 성영택 이용진 김문기 박진아 이원호 임재민 강상미 엄영근 김만식 이태호 (주)한국산업 조원익 조성진 한두련 강옥중 김보열 이태호 이원호 홍세표, 김애용 김영완 강도식 윤이리 조원익 조성진 엄영근 성동철 이철은 김금자 박미선, 최옥림 이두리 남경남 양승원 윤이리 조필준 최윤경 권현옥 조필준

2009년 4월 강옥환 이계숙 배상림 박경숙 김무립 김명순 전역수 진병곤 강정덕 이창훈 조동화 김석순 황진선 김향숙 이상근 장영수 박종식 김택상 최연경 홍정숙 김진환 박동준 강현성 김유식 서양순 이춘달 정지숙 이미영 김현섭 문갑례 유석열 성양원 배종화 오현숙 민영인 유석열 조정남 문은자 서도순 신창환 김복실 김복선 김철영 박연운 이수찬 박국원 허종개 김말순 김정자 박경애 원혜정 강호열 진순옥 박철홍 김민강 호전종합건설 정귀남 이숙이 조점이 윤진란 박묘선 허혜자 이두래 이순복 김성호 한판현 박재홍 정정자 이한준 허성란 제낙을 방이호 사랑자비 윤정자 조현점 이계순 홍은정 이상태 김보열 하부영 박노정 김옥진 김민호 김석연 보리암 김순희 이영자 박향진 김재룡 심영아 황종관 거성실업 김연순 양유경 조계옥 박순자 백승자 전부근 강신출 김종복 서진호 양미모 윤석근 이현숙 허광도 김보열 객선자 남정우 김대수 김문향 한은주 장인옥 고난조 박치훈 정영숙 김용진 김정재 성명숙 박정숙 윤원준 구정숙 김수동 한학조 김창자 김정옥 김복희 최홍래 여연이 박정숙 변재범 강순자 이영숙 변인섭 남태석 이지현(지연) 김옥화 이상근 최연익 강필환 손혜숙 김순점 정정숙 김태형 윤복연 황정숙 이재동 이항래 손순기 이종원 안규철 최재섭 김소연 김재호 최성락 배경조 이소희 윤상일 정정순 이경순 김인호 김현주 최영희 홍순화 백장홍 최진호 이영자 문미경 양채심 성우근 주신옥 이미애 안재현 권종영 박보영 온도석 강규연(뿌지) 강민곤 문경련 김중선 이용호 최인미 김현식 서기석 김주애 김설영 구미자 하정자 이희연 이미경 박옥림 동명특수강 하옥희 전경도 최중웅 강대균 최효심 남경남 김경선 이혜경(구암고) 박종문 김순화 조재영 김오수 고옥희 김수현 법우회 한복남 이창식 백영민 이상흠 정창민 치마저고리 조재경 이영미 천필남 노주현 허귀임 김만식 정병하 하상개 김학길(부산) 박철용 강명자 객진중 이성인 원찬섭 김문기 박진아 심성보 박종태 김금자 거성실업 제금자 김명애 김옥순 이용성 (주)동강 강효상 김극일 박미선, 최옥림 홍세표, 김애용 불명 객진중 팽정옥 박종근 명곡목재 이상백 (주)동강 공인배 김도일 정동희 김정숙 정인숙 이용진 김순권 강쌍범 정순자 정성청 이문희 장형선 조성진 김승선 객은영 정동희 이수미 안중언 조원익 강상미 강옥중 조필준 임화연 조성진 최윤경 공남이 강도식 이수미 왕한석 조원익 정병하 김영완 조필준 제성호 남궁민

2009년 5월 강옥환 강진열 이춘달 김정옥 김복희 이미애 김석연 김문향 조재영 원찬섭 박미선 이상태 남정원 조정남 문은자 이한준 김택상 김성호 강신출 조재경 김문기 조성원, 조하나 김종복 심영아 이상근 김옥화 양미모 신창환 김현주 불여사 동명특수강 김수현 한두련 오현숙 정귀남 이숙이 이항래 주신옥 김현섭 강필환 최을림 김옥순 강효상 윤이리 백효흠 박국원 박경숙 최인미 윤상일 김명순 안규철 구정숙 정수자 공인배 김연순 강현성 김보열 허종개 김정자 이재동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Ⅰ 2009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 내역 Ⅰ

박순자 여연이 이영숙 명곡목재 임화연 남경남 김석순 문미경 김말순 민영인 하부영 김현석 안재현 김태형 하옥희 임영연 강도식 이수찬 정정자 조점이 이현숙 박경애 이창훈 박철홍 영산철물(영오) 강명자 이문희 임재민 호전종합건설 서진호 박노정 김옥진 서도순 김보열 강정덕 정승화 치마저고리 노주현 이두리 박재홍 장인옥 거성실업 이상근 김민호 김정재 보리암 박종선 김명애 제성호 이태호 김재룡 이지현 양유경 윤진란 최연익 김소연 윤정자 최진호 정재근 법무회 최윤경 한은주 남태석 이소희 이용호 박요선 성양원 김유식 황채석(삼정자초등) 박종근 장형선 (주)한국산업 김수동 허성란 김연순 이미영 허광도 김순희 문갑례 강규연 강쌍범 황순자 송외순 황정숙 배상림 정지숙 황종관 진승우 이두래 최연경 박영옥 최중웅 허귀임 하윤숙 변인섭 문경련 제낙울 허혜자 김용진 김진환 이순복 이희연 (주)동강 김도일 김만식 황진선 서양순 장영수 박종식 최홍래 박보영 변재범 하정자 이상백 정숙자 이창엽 윤복연 김향숙 성우근 이경순 방이호 김복선 진소옥 김선옥 이영미 정화원(허영형) 이창엽 배경조 권재섭 정정순 고난조 이종원 사랑자비 김철영 최성락 김오수 서영문 김승선 이계숙 김경수 김무립 홍정숙 김민호 조현점 원혜정 이상흠 이상인 권현옥 이창식 한학조 유석열 윤석근 김창자 전역수 백순자 전부근 이미경 정성청 권현옥 박종태 박정숙 홍순화 박지훈 손윤기 남정우 조계옥 김설영 정창민 전경도 강옥중 박성한 윤원준 김대수 정영숙 김재호 김정숙 양채심 이계순 한선희 이용성 김정숙 진영숙 한판현 이영자 안종연 정정숙 엄영근 김종선 박종문 박철용 고옥희 이홍열 이윤봉 이태현 강순자 이우중 이원형 배진성 양수미 제금자 양승원 천필남

2009년 6월 남정원 김민강 최성식 김승기 김복전 이근일 정귀남 김말순 김순화 문은자 김향숙 온도석 허성란 김행수 한동진 개천면청년회 김영선 정정자 이상근 강신출 윤진란 박경숙 최영희 박향진 손한일 최분이 조광지질 윤주식 김보열 이숙이 김문향 김연순 조정남 백장흠 김순점 이문옥 이두선 김병관 김동은 심영아 조점이 구정숙 김주애 김설영 손혜숙 오현숙 정종필 김무건 김종민 이승진 장인옥 박노정 이영숙 손혜숙 윤원준 최재섭 개천면체육회 정석림 가야건설 전민부 흥진토건사 서진호 거성실업 김태형 김복선 이계순 강옥환 한중구 김수용 허경도 박현규 새마을지도자 한학조 윤석근 대한지적공사 최영희 한판현 강대균 이경열 서상열 적십자 유흥렬 김종복 이소희 박지훈 이희연 성명숙 김석순 권종영 박용달 이근섭 옥천사 김은숙 이상태 남태석 김정옥 최성락 권종영 정정숙 구미자 강성중 최낙연 도홍순님 탁동열 김재룡 문미경 제낙울 강규연(뿌찌) 강대균 백장흠 박정숙 이영미 이길열 박용두 강중구 한은주 강민근 정정순 하정자 온도석 광선자 김주애 제인호 백유천 이남구 최희성 김수동 문경련 이향래 이상흠 홍은정 박정숙 광선자 오정부 연화주유소 김영환 김수원 호전종합건설 배상림 정지숙 이미경 박동준 구미자 홍은정 채종달 남상림 이재환 강종만 변인섭 남정원 김옥화 한선희 정인숙 이용진 성명숙 최상태 영천낙우회 김동현 조매자 이계숙 이지현 김무립 정창민 이철은 팽정옥 박동준 자율방법대 배기영 새마을지도자 제범환 윤복연 황정숙 성우근 박철용 김금자 이수미 조동화 김주화 김병택 농업경영인회 이태영 배경조 민영인 장영수 심성보 한두련 이수미 배종화 리동장일동 이동호 박정규 김희근 이수찬 서양순 김정자 박종문 이태호 안종연 박연운 강태규 이명열 정복돈 황인만 박국원 황진선 허성란 제금자 최윤경 왕한석 김복실 송형규 박광후 채영수 장승렬 정영숙 허중개 허혜자 양채심 홍세표, 김애용 김순권 고성사암연합회 오인영 김창자 백영현 몽운사 최인미 이춘달 김옥진 김순화 홍세표, 김애용 이창식 김학주 이미애 하부영 김경수 박재철 이미영 유석열 이용호 강필환 조현점 강옥중 김점태 박요선 김민호 박종식 강중술 이상근 신창환 김현석 김순점 최재섭 하상개 최홍래 이종원 이경순 김택상 옥천주유소 양유경 김현섭 박연운 박향진 김재호 권현옥 홍정숙 손윤기 김복희 고난조 남정우 황종관 이용진 김민강 박종근 이용성 보리암 박경애 최연익 이한준 김현주 성양원 강정덕 팽정옥 광진중 강쌍범 이성인 이문희 전역수 양미모 김석연 여연이 백순자 이순복 김순권 김옥순 주동강 정성청 임영연 방이호 원혜정 사랑자비 최연경 김순희 진소옥 이수미 명곡목재 이영미 전경도 임화연 김민호 진승우 조계옥 문갑례 박보영 변재범 이수미 정순자 이상백 고옥희 강효상 주신옥 윤정자 김보열 이현숙 김소연 김철영 왕한석 치마저고리 김오수 원찬섭 공인배 윤상일 김용진 김점재 이두래 박정숙 전부근 동명특수강 강명자 송현도 김수현 노주현 허광도 강순자 안규철 이창훈 김성호 홍순화 조재영 정재근 송윤희 김문기 하옥희 이재동 서도순 안재현 김진환 박철홍 김대수 조재경 김명애 허귀임 불명 이두리 장형선 제성호 배종화 김만식 김도일 조동화 정숙자 정병하 황순자 공남이 김승선 박진아 최중웅 법무회 최옥림, 박미선 서상희 정동희 정인숙 김금자 동전 조성원, 조희나 안미경 박성한 진영숙 이윤봉 양수미 문상필 김희정 이우중 이태현





2009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 내역

2009년 7월 강옥환 정귀남 이숙이 김정자 김복희 윤상일 신창환 김순희 박보영 강신출 동명특수강 오현숙 김보열 조정남 김경수 이경순 이재동 원혜정 조현점 윤원준 김종선 조재영 남정임 정정자 이상근 윤진란 정영숙 윤정자 김용진 백승자 정정숙 봉림서관음희 조재경 허성순 서진호 김말순 이웅호 강정덕 김명순 최상태 김복선 한판현 대한미용사회(마산합포지부) 박진중 김종복 장인옥 박경숙 김옥진 강순자 서도순 이현숙 성양원 김재호 김문향 김옥순 한은주 한학조 조점이 정지숙 배종화 하부영 김현석 김진환 손혜숙 구정숙 정순자 호전종합건설 민영인 박노정 허혜자 박동준 이상근 김정재 남정우 박선자 이영숙 명곡목재 김재룡 이영자 거성실업 양유경 조동화 박종식 김석연 이순복 온도석 김태형 치마저고리 이상태 황정숙 윤석근 김연순 김순점 박묘선 조계옥 진순옥 백장흠 불명 강명자 김수동 남태석 박치훈 주신옥 김현섭 김민호 김보열 김설영 최영희 전원기 정재근 이영자 서양순 제낙울 손윤기 한선희 허광도 사랑자비 박정숙 권종영 박영옥 강쌍범 강현성 김향숙 김정옥 박경애 정창민 진승우 안재현 이창훈 성명숙 이희연 박종근 변인섭 배상림 김무립 홍정숙 박종문 방이호 강필환 변재범 김주애 하정자 주동강 윤복연 문미경 성우근 이한준 박철용 최홍래 안규철 홍순화 박정숙 강규연(뿌이) 비케이건설(주) 배경조 남정원 정정순 최인미 제금자 최연익 김현주 김소연 구미자 불명 이성인 이계숙 문경련 이향래 이미영 양채심 김인호 문갑례 박철홍 박연운 백연희(김갑연) 이상백 박재홍 강민곤 김옥화 황종관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전억수 최연경 김성호 최재섭 불명 이용성 황진선 유석열 장영수 양미모 김순화 이종원 이두래 김철영 홍은정 주선자 정성청 심영아 이춘달 문은자 고난조 강진환 이미애 이지현 강현성 박향진 이상흠 전경도 박국원 허종개 김복실 김창자 한두련 김택상 보리암 전부근 강대균 이미경 이영미 원찬섭 이정훈, 이미숙 장형선 김도일 이홍열 이수미 남경남 불명 이창식 조원익 김경선 김문기 노주현 임화연 이용진 김만식 왕한석 강상미 최윤경 김진영 조성진 (유)한국산업 이문희 강효상 제성호 팽정옥 서영문 안중언 이두리 김영완 심영란 조원익 정숙자 김오수 황순자 허귀임 김순권 박미선, 최옥림 서상희 강옥중 남정애 조필준 조필준 김승선 김수현 공인배 박진아 이수미 이태호 최중웅 윤이리 김승선 조성진 임재민 송외순 하상개 정인숙 한두련 배진성 이태현 진영숙 이윤봉 양수미 문상필 김희정 이우중 임재민 김금자 엄시흠 이홍열

2009년 8월 강옥환 김보열 박치훈 거성실업 김창자 김현석 남정우 백승자 김대수 강신출 조재영 심영란 심영아 김말순 김용호 손윤기 이미애 김재호 이창훈 윤원준 황기석(부산) 조재경 오현숙 박국원 김정옥 허혜자 홍정숙 이두래 홍은정 성양원 한판현 조현숙, 김순권 명정식 김진영 황진선 이숙이 김옥진 이경순 김보열 김순점 조현점 윤정자 조말숙(진해) 박진중 허성란 이영자 김옥화 이웅호 주신옥 김석연 박향진 김진환 정정숙 김문향 김옥순 이상태 이지현 유석열 윤진란 서도순 전억수 박종문 김소연 김주애 구정숙 명곡목재 김종복 장인옥 문은자 김연순 이한준 김정재 제금자 박보영 구미자 김태형 동명특수강 한은주 서진호 장영수 정영숙 윤상일 김인호 김종선(제이에스무역) 박정숙 온도석 이영숙 정순자 김재룡 황정숙 정정순 이미영 이재동 김택상 양채심 김성호 권종영 조용수, 오정옥 사랑하세요 박재홍 남태석 성우근 최인미 김명순 신창환 김순화 박철홍 성명숙 이일수 치마저고리 김수동 배상림 허종개 민영인 김용진 강필환 하윤숙 강정덕 손혜숙 강규연 강명자 호전종합건설 문경련 이춘달 김경수 김복희 김현섭 이성인 보리암 백장흠 박영옥 정재근 변인섭 김대수 김무립 김유식 하부영 안규철 정성청 이순복 박선자 이희연 김명애 이수찬 김향숙 이상근 백근기 김민호 김현주 전경도 변재범 강대균 하정자 비케이건설 윤복연 문미경 조정남 정재현 박묘선 원혜정 이용성 진순옥 최영희 최성락 황희석 한학조 서양순 이현숙 정귀남 허광도 오경옥 서상희 김철영 박정숙 박종선(마산) 박종근 배경조 이향래 김정자 이상근 진승우 문갑례 원찬섭 구정순 박동준 이상흠 강쌍범 이계순 박경숙 조점이 황종관 방이호 최연경 이문희 강순자 배종화 이미경 주동강 이계숙 제낙울 최상태 김석순 최홍래 이영자 김수현 전부근 박연운 한선희 이영미 정정자 윤석근 양유경 박종식 최연익 김순희 강효상 김설영 조동화 정창민 이상백 고난조 정지숙 박노정 양미모 이종원 김복선 공인배 홍순화 최재섭 박철용 김문기 노주현 최중웅 장형선 김오수 허귀임 팽정옥 임화연 이수미 안중언 윤이리 최윤경 임영연 제성호 황순자 박진아 이용진 이수미 김순권 이정훈, 이미숙 김도일 박미선, 최옥림 심성보 김만식 이원호 이창식 박종태 불명 공남이 강옥중 한두련 박성한 양수미 김희정 이원호 남경남 김경선 (유)한국산업 정숙자 강옥중 강상미 이태호 이윤봉 문상필 이우중 이태현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Ⅰ 2009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 내역 Ⅰ

2009년 9월 강옥환 이계숙 이춘달 이현숙 김복희 김택상 조현점 온도석 강신출 (주)동명특수강 최종웅 심영란 황진선 허종개 김정자 방이호 김현섭 백승자 손혜숙 김문향 명정식 원찬섭 김진영 한학조 이상근 박노정 주신옥 신창환 김복선 최영희 구정숙 조재영 김오수 사랑자비 정정자 유석열 원화첩 박묘선 원혜정 성양원 강대균 김태형 조재경 이문희 김민강 김보열 박경숙 허해자 황종관 이영자 김순점 김주애 이영숙 박진중 김수현 이계순 박국원 조정남 윤진란 양미모 김현석 김소연 객선자 배청자 김옥순 임영연 오현숙 정귀남 김말순 김옥진 하부영 김석연 김진환 구미자 이희연 정순자 임화연 허성란(서부) 심영아 이숙이 이웅호 김민호 김보열 박정숙 성명숙 강규연(뿌지) 명곡목재 강효상 이상태 서진호 조점이 이항래 이한준 사랑자비 이현숙 박정숙 하정자 치마저고리 공인배 황정숙 장인옥 이지현 정영숙 윤상일 김정재 김성호 박동준 최성락 강명자 노주현 김재룡 남태석 거성실업 최인미 이재동 김현주 박철홍 박연운 최근철 정재근 서상희 김종복 문미경 박치훈 이미영 허광도 강필환 강정덕 배종화 불영 황희석 장형선 박재홍 최상태 윤석근 이상근 진승우 안규철 보리암 이계순 이미경 강쌍범 허귀임 윤복연 문경련 박태남 양유경 김용진 최연경 김유식 권종영 한선희 박종근 박진아 한은주 배상림 제낙울 김연순 백영현 문갑례 오경옥 최재섭 정창민 비케이건설㈜ 황순자 김수동 서양순 김정옥 이경순 박종식 이두래 강순자 박향진 이상홍 주동강 제성호 호전종합건설 김향숙 성우근 고난조 최연익 이영자 천영란 정정숙 박종문 김문기 김도일 김복실 김철영 김무립 김창자 최홍래 윤정자 손양근 심성보 제금자 이상백 이용진 남정임 윤원준 문은자 서도순 전억수 박보영 이순복 이원형 양채심 이영미 팽정옥 배경조 김복실 정정순 손윤기 김인호 김순희 진순옥 송외순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성인 김순권 최상숙 홍순화 정지숙 김민강 이종원 이창훈 변재범 권현옥 김순화 이용성 이수미 남정원 한판현 김옥화 홍정숙 이미애 남정우 김대수 서영문 권정호 정성철 이수미 변인섭 김정숙 장영수 김재호 백창홍 홍은정 김설영 이이봉 하상필-반성주유소 전경도 이미숙, 이정훈 정인숙 김민식 홍세표, 김애용 조성진 조필준 김승선 임재민 정숙자 신동순 이태호 안중언 엄영근 윤이리 조원익 조성진 남경남 최운경 최효심 (유)한국산업 박종태 정인숙 왕한석 장병하 김영완 조원익 조필준 강도식 이창식 이홍열 강옥중 김금자 강도식 객진중 정성중 이호길 홍세표 이태현 이윤봉 양수미 문상필 김희정 이우중 배진성

2009년 10월 강옥환 정귀남 박경숙 이미영 김창자 김현섭 남정우 강신출 박철용 명정식 김정숙 김진영 박국원 허종개 김무립 이한준 원혜정 이창훈 수산기술사무소 제금자 동명특수강 김경선 심영란 정정자 조정남 이항래 손윤기 김용진 진순옥 대한지적공사 김종선(제이에스무역) 김옥순 김만식 민영인 문경련 이춘달 정영숙 김복희 김명순 백승자 김문향 양채심 명곡목재 임재민 전부근 김보열 이상근 성우근 홍정숙 김현석 조현점 이영숙 김태형 조재영 강상미 김수동 심영아 유석열 최인미 주신옥 김정재 이순복 박복돌 이문희 조재경 한두련 호전종합건설 서진호 김말순 김옥화 양미모 김보열 김복선 구정숙 임영연 정순자 이원호 김재룡 장인옥 김정인 정정순 윤상일 김석연 이두래 하윤숙 강효상 황희석 한복남 박재홍 최상태 정숙향 문은자 이재동 사랑자비 박정숙 불영 공인배 치마저고리 한복남 김종복 청련암 조점이 김정자 서도순 김현주 배상림 최성락 임화연 강명자 이현순 이상태 허성란 삼영토건 김옥진 하부영 안규철 김순희 강규연 노주현 정재근 최운경 한은주 남태석 거성실업 이상근 박묘선 강필환 김진환 하정자 제성호 비케이건설㈜ 남경남 오현숙 문미경 윤석근 윤진란 김민호 강정덕 변재범 이인섭(마산) 장형선 박종근 김승선 남정임 김향숙 박치훈 이용호 허광도 윤정자 성양원 이상홍 황순자 강쌍범 하상개 류미경 이숙이 박태남 박종식 진승우 김석순 김소연 하윤숙 박진아 주동강 김명완 변인섭 김대수 김정옥 이경순 최홍래 최연경 박보영 김경민 허귀임 이상백 윤이리 최상숙 윤원준 제낙울 고난조 최연익 문갑례 김성호 유봉식 김도일 최중웅 이이봉 윤복연 정정숙 이영자 객선자 방이호 강순자 박철홍 최을림 김도일 김문기 권현옥 배경조 보리암 양유경 성명숙 이종원 김복실 김철영 손태영 이용진 이성인 강옥중 최미영 한판현 이지현 강대균 이미애 박연운 전부근 구본성 팽정옥 정성철 (주)한국산업 이계숙 김재호 김연순 박정숙 전억수 김월선 김설영 손금옥 김순권 전경도 정숙자 황진선 백창홍 이현숙 최영희 김인호 박향진 최은지 이미경 이수미 이용성 김금자 한학조 온도석 허해자 권종영 남정원 최재섭 이계순 한선희 이수미 김수현 김정숙 황정숙 손혜숙 황종관 김주애 김택상 임막순 김유식 정창민 안중언 원찬섭 강상미 서양순 구미자 장영수 홍은정 신창환 백상호 홍순화 박종문 왕한석 김오수 한두련 이호길 홍세표 정지숙 이태현 진영숙 정성중 이윤봉 양수미 객진중 문상필 최영숙 이우중 안미경 서상희

2009년 11월 김민강 한학조 이숙이 박노정 홍정숙 김현섭 이창훈 강정덕 김순화 조재영 남경남 강옥환 민영인 윤석근





2009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 내역

허혜자 손윤기 허광도 박정숙 강순자 강신출 조재경 김영완 김진영 남태석 이상근 이용호 주신옥 신창환 박보영 이창훈 김태형 명정식 윤이리 박동준 허성란 제낙울 김옥진 이한준 원혜정 김소연 박정숙 김문향 동명특수강 이창엽 배종화 문미경 김정인 윤진란 윤상일 진승우 김순희 박보영 구정숙 김옥순 강진환 심영란 배상림 박태남 이향래 서도순 김명순 박철홍 김소연 이영숙 명곡목재 최은경 김순점 문경련 김정옥 최인미 하부영 윤정자 김성호 김순희 이희연 정순자 양승원 김종복 이지현 박치훈 정영숙 김복희 김현석 강정덕 박철홍 하정자 치마저고리 양승원 이상태 황정숙 김말순 이미영 이영자 최연경 강순자 김성호 최성락 강명자 김순선 김수동 박진희 유석열 양유경 김민호 문갑례 이창훈 강정덕 이상홍 정재근 정병하 호전종합건설 황진선 조정남 이상근 김정재 방이호 박정숙 강순자 이미경 황희석 박종태 김재룡 김향숙 허종개 황종관 김인호 이두래 박보영 이창훈 한선희 박종근 서영문 한은주 서양순 이춘달 박종식 박묘선 남정우 김소연 박정숙 정창민 강쌍범 권현옥 박재홍 최상태 정숙향 김연순 사랑자비 김진환 김순희 박보영 박철용 주동강 불명 변인섭 박경숙 조점이 고난조 김석연 성양원 박철홍 김소연 박종문 비케이건설 정숙자 최상숙 박향진 거성실업 김창자 김보열 조현점 김성호 김순희 제금자 김문기 박미선 이계숙 김순점 정정순 양미모 전역수 김복선 강정덕 박철홍 하윤숙 이상백 김정숙 윤복연 원찬섭 김옥화 이경순 김택상 백승자 강순자 김성호 김종선(제이에스무역) 이영미 김경선 배경조 김오수 문은자 황순자 최연익 이수미 이창훈 정인숙 강갑순 김수현 이태현 이영자 강효상 김무림 객진종 이종원 허귀임 박정숙 이태호 양채심 이용성 홍세표 정귀남 공인배 정지숙 서상희 이미애 박진아 박보영 이창식 김순화 정성형 양수미 박국원 임화연 장영수 이용진 최홍래 이미숙, 이정훈 김소연 이창식 김만식 이성인 이우종 정정자 노주현 성우근 팽정옥 김현주 김도일 김순희 송외순 신동순 전경도 이문희 김보열 제성호 이현숙 이수미 안규철 안중언 박철홍 심영숙 이원호 최중웅 이원호 장인옥 장형선 김정자 강도식 강필환 김순권 김성호

2009년 12월 강옥환 장인옥 이상근 김정자 하부영 신창환 강정덕 윤정자 백장흠 진주교도소 동명특수강 남정원 박진희 이숙이 이원석 이경순 김현섭 강순자 이계순 손혜숙 옥천사(진성스님) 명정식 심영란 최상숙 박경숙 허혜자 양미모 원혜정 최상숙 보리암 강갑순 하상필, 하창식 조재경 김진영 남태석 조정남 양유경 고난조 김태성 조필준 김유식 박연운 최상중 조재경 강현성 문미경 김말순 이용호 김창자 김정재 김대수 홍순화 김석순 이예경 김옥순 김복실 허성란 유석열 윤진란 김복희 사랑자비 김설영 전부근 김민강 최을림 정순자 노주섭 서양순 김정인 김옥진 박묘선 김석연 변재범 정정숙 박향진 원찬섭 명곡목재 이상태 민영인 조점이 김연순 김민호 김보열 박정숙 김재호 최재섭 이문희 최중웅 김수동 문경련 정숙향 정영숙 손윤기 안규철 성양원 객선자 배종화 이수연 치마저고리 박재홍 배상림 최상태 최인미 홍정숙 김현주 김진환 김주애 박동준 노주현 강명자 호전종합건설 김향숙 거성실업 박노정 주신옥 강필환 김소연 성명숙 팽현봉 이갑도 김수현 김재룡 남정원 윤석근 이미영 이영자 최상숙 박보영 최영희 강현성 박진아 정재근 한은주 황정숙 박치훈 이상근 허광도 안규철(동지기) 김순희 권종영 남수미 강효상 황희석 윤복연 허종개 김정옥 김명순 윤상일 최상환(동지기) 김복선 홍은정 정선옥 황순자 비케이건설 남정임 이춘달 제낙울 이현숙 진승우 김동진 백승자 구미자 김순점 공인배 박종근 배경조 강신출 박태남 최연익 김용진 문갑례 이창훈 박정숙 박종선 장형선 강쌍범 김종복 봉림사관음회 김정숙 황종관 최홍래 최연경 조현점 강대균 최상태 임화연 주동강 변인섭 구정숙 이향래 이한준 박종식 이두래 남정우 온도석 거성실업 허귀임 김문기 이계숙 김태형 성우근 이희연 서도순 이상홍 이순복 박철용 창원전문대학 제성호 이영미 이지현 이영숙 정지숙 하정자 방이호 박옥림 진순옥 제금자 봉림사관음회 객진종 이상백 박연순 최을림 김무림 금강회 전역수 하윤숙 김철영 양채심 안중숙 김도일 안선옥 김보열 최을림 문은자 이세영 김인호 이미경 박철홍 김순화 이일수 김오수 이성인 정정자 윤순옥 김옥화 강홍식 김현석 한선희 김성호 전명순 불.여.사 이용진 정성형 정귀남 박복돌 정정순 대한지적공사 이미애 정창민 윤원준 개천초등학교총동창회 죽림사(자문스님) 팽정옥 전경도 박국원 하상필, 하창식 장영수 주선자 김택상 박종문 한판현 보광사(도홍스님) 이수미 김순권 이용성 이수미 이이봉 조필준 조성진 최은경 이창식 강영란 임재민 성영택 불명 정병하 안중언 이태호 조성진 조원익 김순선 전판식 이이봉 공남이 성윤혁 김금자 강옥중 왕한석 한두련 조원익 정화원 윤이리 남경남 정숙자 한두련 성고은 이창식 배진성 서상희 정인숙 조필준 김만식 이원형 임옥자 김영완 박복달 성아름 김윤석 정영훈 정정자 조원익 박미선, 최을림 노춘식 남경남 양수미 김희정 김병호 최영숙 이호길 강일근 정정자 조성진 임재민 김정숙 이태현 이우종 문상필 백상호 최숙자 홍세표 조성진 조필준 조원익 양승원 하상개 이윤봉 정성중 임막순 진영숙 이영숙 정인숙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Ⅰ 2009년 1월 ~ 12월 일반후원금 내역(시설) Ⅰ

2009년 11월

한행주 한행주 차춘자 이성조 이갑희

2009년 12월

김월선 강미석 한행주 구창국 주선자 차춘자 이갑희

Ⅰ 2009년 1월 ~ 12월 결연후원금 내역(시설) Ⅰ

하정숙:정다운,박유영

윤다혜:유관중

서정환,하우순:박익렬

김종복:박지환

강성길,박정임,강경민,박순자,박명연,하충훈,박정하:박지우

성순남:김신

성순남,이정화:김철영

조선래,유화진:김원영

김외경:박민승

김문례:석동인

김흥구,강옥자:박정민

조규열,박명이:한일성

김주열,양순자:김영천

삼별화:양진우,최성진

강승규,양순자,이영빈:김백천

이동훈:김희태

성순남,박정임,강경민:박사훈

하정숙,박명주,권영숙:김효림

박해경:이상민

정유섭:황재균

이해준:한승민

김영숙:유승민,유승근,유승영

황경수,하정숙:신민규

조규열:신영주

공우상,김봉환:김동천

김흥구:서희원

황경수:김광일

옥영준:전주영

장원석:석원진

김인순,서정환:박경주

김외경:신경미

강옥환,남정우:오슬기

김경마:신영미

이희욱:배희승

임우만,손성욱:김홍래

안성호:박지원

박국원:이동훈

박세현:박용환

최태윤:이종섭,이기소

강다규:이정현

박용주:박준상

이숙진:김고근

신증섭:장운영

창원삼성테크원:김형택,김광석,이수현,김원영,김성일

(주)신아정밀:김성환

어린이재단

석동인,황재균,한승민,이수현,김동천,황경선,박사훈





2009년 1월 ~ 12월 일반후원물품 내역

1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동명한의원, 박서이, 강숙이, 보리수회, 고려당, 한독약국, 우산반점(고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푸드뱅크, 박성범(프로스펙스), 작은사랑, 두산중공업(강효상), 김용진, 김연순, 김의조, 무주함지식당(이중배), 양판곤(양종민 연고자), 불명, 윤덕점, 하부영(보련회), 한두련(마산), 이홍두(창원시), 아동연합회, 전법사, 마산교도소불심회, 송학관(마산), 보리수회 이동락(구만), 삼성테크윈(김상진), 정선옥, 틈새사랑, 이옥자(미용봉사), 사회복지사 이영빈, 수양모텔, 고성군(주민생활과), 이병오, 도청(경제기업지원과), 이정섭, 최중림(거제), 염용하이사님, 명가떡집(최상숙), 고성군의회, 하창식이사님, 생활선원, 영천중학교, 조선미(다움), 개천우체국장, 김현관, 개천면장, 박복돌(고성경찰서), 김상진, 정연옥(진동), 장익렬, 사천꽃집, 영농식육점, 김이슬연고자, 아트콤(주), 전국한우협회(농업기술센터), 사천청과상회(진주)

2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미용봉사회(마산), 전성애외1명, 송학관, 동명한의원, 이은희, 소원성취사, 사회복지사 이영빈, 우산반점(고성), 보리수회, 보련회(영양사회), 관음새(반성), 서대득(진주기아자동차), 박용주복지사.

3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동명한의원, 관음새(마산), 고려당(문산), 한독약국(문산), 강숙이(마산), 좋은인연, 동명한의원, 윤덕점, 보리수회, 나눔의향기, 정원사, 무학사(함안), 작은사랑, 김성현연고자, 박철우복지사, 세진암(관음회), 강설인, 손금옥, 우산반점(고성), 틈새사랑, 창원전문대학(사회복지과), 김상진, 보련회, 이옥자, 영희, 봉림사관음회, 송상훈외3명, 두산중공업(최근철, 송판호), 경남아동연합회, 박용주복지사, 창원전문대문헌정보과

4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신우회, 광복금, 구창국(창원), 이만식, 김은섭, 김순임, 푸드뱅크, 사천꽃식물원, 보리수회, 작은사랑, 나눔의향기, 명주형연고자, 윤영화, 동명한의원, 이동숙, 우산반점, 틈새사랑, 이옥자외2인, 전성애외1인, 박철우복지사, 손금옥외2인, 최상숙, 김말순, 이영빈복지사, 창원전문대, 박용주복지사, 보련회, 윤덕점, 거성실업, 주선자, 이정화복지사, 강설인

5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박철우복지사, 손금옥, 국제대총장, 틈새사랑, 옥천도예, 최을림, 한국자유총연맹(고성지회), 염용하이사, 미타사주지스님, 동명한의원, 혁신기업, 두산중공업, 정봉식(마암면), 최용(덕성), 최병국(청광), 청련암, 정토만일회, 김정연, 하만이이장, 최희성이장, 최상림(청광), 박명희(누진농장), 김상진, 박진아복지사, 윤덕점외5인, 고려당(문산), 한독약국(문산), 삼정자초등학교, 김이슬연고자, 이옥자, 일진금속, 전성애외1인, 삼정자초등학교(유치원), 고성이스턴힐, 세원암, 김용태, 하창식이사, 심영훈, 김지인복지사, 윤정남, 강설인, 하동FC어머니회, 정다운연고자, 고성군생활체육회국장, 유영학(통영FC감독), 보련회, 우산반점, 양순자(심싱수산), 푸드뱅크, 진주불교청년회, 문화나눔

6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동명한의원, 김명자조리사, 양순자, 강승규복지사, 고려당(문산), 한독약국(문산), 관음새(반성), 김용태, 보리수회, 좌이마을, 구영숙, 박사훈연고자, 한강순(경기), 강숙이외1인, 황봉희(마암), 통영중학교, 나눔의향기, 전명환(진주금곡면), 윤덕점외, 이영빈복지사, 원명스님, 박정임, 김두철, 전성애외1인, 이옥자, 창원제일라이온스, 틈새사랑, 미타사, 박식(대아기계), 우산반점, 강설인, 아동연합회, 봉림사관음회, 우리자원, 진주보건대사회복지과, 보련회, 여성농민회(고성), 정영숙(대가신전보건진료소), 김상진, 송학관(마산), 정영식(영오금산)

7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여한의사회, 경남아동연합회, 동명한의원, 봉림중학교, 어득수연고자, 관음새(마산), 신우회, 한독약국, 고려당, 박덕영(함안군복), 푸드뱅크, 김집(이은희), 천사의집, 하창식이사, 윤덕점외, 보리수회, 작은사랑, 강숙이, 손금옥, 박국원, 틈새사랑, 창원전문대, 전성애외1명, 김상진, 이한준, 이호창(마산), 이정화복지사, 김갑연, 소가야식당(고성), 영오장모님동담, 정부로(고성생활국장), 우산반점, 김범천, 아동연합회, 윤정남(부산), 이상민연고자, 보련회, 김갑연, 영농식육점(사천)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Ⅰ 2009년 1월 ~ 12월 일반후원물품 내역 Ⅰ

8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조재영,조재경형제, 신우회, 한독약국(문산), 고려당(문산), 윤정남(부산), 이정화복지사, 불명, 청연암, 황봉이(마암), 손금옥,강숙이, 전경록(두산중공업), 이옥자, 하창식이사, 이인섭, 최대섭, 수효원(수암법사), 이일수(파티마병원), 강설인, 강명화, 관음사, 나눔의향기, 더불어사는누리, 봉림사관음회, 불교와여행을사랑하는사람들, 우산반점, 틈새사랑, 내서로타리클럽, 박사훈연고자, 두산중공업법우회, 보리수회, 성주사

9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보리수회, 강숙이,손금옥, 고려당,한독약국, 불여사, 관음사(마산), 법장사(대구), 문학나눔, 동명한의원, 프로스펙스(박상범), 틈새사랑, 광봉금(진주), 윤덕점외, 이정화복지사, 영농식육점(사천), 경남항공고48회동창회일동, 이홍두,최상숙(창원), 김선희, 최숙희, 영천면사무소, 윤정남(부산), 불명, 김상진, 전성애외, 박상범외2인, 최근철(두산중공업), 창원성주사(민서연고자), 배청순, 이기순, 고성교육청(교육장), 스타골든벨, 경남도청(환경녹지과장), 강석만, 우산반점, 두산중공업, 보련회, 박진아복지사, 고성군, 두산법우회, 보리수회, 조선례, 정토만일회, 도청경제지원과, 개천면 새마을협의회, 한전, 최을림, BK건설(주)이충희대표이사, 고성군의회,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고성경찰서, 윤강호, 김미정외, 성동조선사회봉사단, 마산교도소불심회, 배두한의원

10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부산생활선원, 개천우체국장, 개천면장, 삼원건설, 고성개논, 어득수연고자, 권현옥산부인과, 틈새사랑, 김담영(영화나눔선생님), 강숙이외1인, 고려당(문산), 한독약국(문산), 생활선원, 동명한의원, 김지인복지사, 창원전문대청소년복지과, 강승규복지사, 수양모델, 박판모(부산), 푸드뱅크, 사천식물원, 황홍점복지사, 전성애외1인, 신우회, 이옥자, 장수한의원, 김미정 윤강호, 강석만, 경남지방경찰청, 우산반점, 영농식육점(사천), 보련회, 김길준, 육윤종, 박말출외3인, 아누라따야란야신도회, 이경희, 관음사(마산), 창원전문대, 최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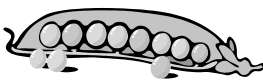
11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고려당,한독약국, 천수사(오성스님), 김점연(LG화재), 푸드뱅크, 서암정사, 두성사(김해 진례리), 손금옥, 최상숙, 농어촌고성지부, 전병준, 황원찬, 강숙이,손금옥, 김지인복지사, 사천청과상회(진주), 노유란복지사, 박철우복지사, 소가야식당, 전성애, 고순주, 작은사랑, 거성실업, 미타사, 강설인, 장수한의원, 황윤찬, 보련회, 배석만(좌연리), 영농식육점, 봉림사관음회.

12월 후원물품내역 명단 최상숙, 배석만(좌이), 틈새사랑, 고려당(문산), 한독약국(문산), 윤정남(부산), 관음사(반성), 신우회, 포향판넬(마암), 박철우복지사, 김순아, 정상현, 정찬식(금산영오), 틈새사랑, 다솜회이지은, 고성네트워크, 동명한의원, 진주외한은행, 두산중공업, 김경미, 정선옥, 미타사, 이옥자, 송병욱(창원), 죽림사(삼천포), 마산라이온스, 홍찬순, 강승규복지사, 불명, 안증숙(함안 칠원면), 이태수(마암), 김준식복지사, 소원성취사, 금강회, 청호환경(주)강칠환, 김지현, 전성애, 강숙이 손금옥, 성산로타리클럽, 동고성농협, 청담사상연구소, 김점여(LG화재), 신정식(통영광도), 응석사(오회순 외2인), 진주불교청년연합회, 고성철쭉회, 경남체육고등학교, 이정화복지사, 보리수회, 영농식육점, 보리수회, 영농식육점(사천), 정정순, 김외경 김경미, 불명, LB헤어칼라, 불명, 김지인복지사, 봉림사관음회, 월드마트, 최을림, 양순자, 김상진, 황정숙(설록원), 이경희, 우산반점, 푸드뱅크, 엘림상사(김수보), 경남아동연합회, 하부영.





나눔의 행복



1. 해피빈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세요~

♡ 해피빈이란?

해피빈은 3,500만 네티즌과 공익 단체, 후원파트너가 함께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 해피로그란?

해피빈에서 지원하는 공익단체들의 블로그입니다.

♡ 콩이란?

콩은 온라인 기부아이템을 뜻하며,
콩 1개 = 1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 콩 모으는 방법은?

첫째, 네이버에서 콩메일을 쓰세요. 매일 한 통으로 콩 1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최대 1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네이버 지식in 답변하기에 참여하고 콩을 모읍니다.

셋째, 네이버와 해피빈 곳곳에 있는 콩 배너를 클릭하고 콩을 받습니다.

넷째, 매달 15일 해피빈 기부day에 참여하고 콩을 받습니다.

다섯, 카드 포인트(BC카드 포인트, KB카드 포인트)를 콩으로 바꿉니다.

(100포인트 = 콩 1개)

여섯, 소액이라도 내가 가진 현금, 네이버 코인으로 콩을 충전합니다.

(100원 = 콩 1개)

♡ 참여 방법은?

첫째, 콩 모으기

네이버(www.naver.com) 로그인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콩 모으기 (자신이 보유 한 콩에 대한 정보는 MY 해피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콩 기부하기

보리수동산 2010 가기 (해피빈 검색창에서 '보리수동산' 검색) ... 보리수동산

2010 해피로 그 ...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기부하기' 클릭

보리수동산 후원금은 여러 가지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지원되어 거주하는 아동들에게 모두 다양한 문화 체험 및 폭 넓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쓰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해피빈에서 소득 공제의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선물받은 콩을 기부하셨을 경우, 결제를 통해 충전콩을 선물하신 분께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며, 후원캠페인을 통해 받은 콩으로 기부하신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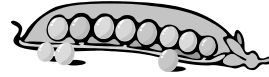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나눔의 행복



2. 이마트에서 물건 구매 후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 시 영수증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희 보리수동산에 마일리지를 쌓아주세요~
마트에서 필요하신 물품도 구매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도 보내실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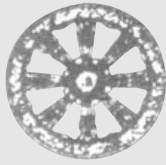
♡ 이마트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 방법

첫째, 이마트 엘리베이터 옆에 배치된 무인적립기에 갑니다,
둘째, 화면에서 '지역단체 마일리지' ...> '보리수동산 지정번호(진주:239, 마산:5)' 클릭
셋째, 화면 아래 바코드 인지 면에 영수증 맨 끝에 있는 바코드를 갖다 대세요,
넷째, 마지막으로 '확인' 을 누르시면 끝~

지점명	기관명	지정번호	연락처
마산 이마트	정토만일회	005	055-711-1234
진주 이마트	보리수동산	239	055-749-1234

♡ 지역단체 마일리지 적립을 깜빡하고 잊으셨을 경우, 경남 고성군 옥천사내 청련암이나 보리수동산으로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 분기별로 영수증으로 모아서 마산과 진주에 있는 이마트에 적립해서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정토만일봉사회

회장 강미석

638-980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전화 : (055) 672-0078 팩스 : (055) 672-1308

사랑과 꿈을 나르는 보리수회

회장 김영례

창원시 소담동 105-1 송백해피빌 202호

휴대전화 : 011-871-3033

한마음치과

원장 안중언

경남 진주시 상대2동 303-62
☎055-762-2875

변재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경남 창원시 사파동 124-11호
영창빌딩 2층
☎055-264-0390~1

BK건설주식회사

전기/정보통신/기계설비/전문소방
대표이사 이충희
경남 창원시 명서동 104-1 KT서창원지점 4층
☎055-237-7801~3

(유)대보

대표 박문순

경남 마산시 봉암동 376-6
☎256-0733

서진호 의원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 1611-202
☎673-1977

이상흠이비인후과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71-4번지
자산빌딩 2층
☎674-7933

권현옥 산부인과

경남 진주시 신안동 582-1 경남은행2층
☎743-7567

거성실업

대표 김영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2동 1130-12
☎782-3760

이일수

(순환기내과 과장/전문의 의학박사)

창원파티마병원

경남 창원시 명서동 212
☎270-1253

대한지적공사

울산 경상남도 본부
고성군지사
☎673-3539

보리암

원정스님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862-6115

학우문구센타(창원점)

대표 노동희
경남 창원시 사파동 119-12
☎267-9799

정원물산

대표 최규원

경남 마산시 합성동 327-17
☎299-9051~3

국제 로타리3720지구

창원성산로타리클럽

株式會社日光電氣建設

사장 김선일
진주시 상평동 203-3번지
☎755-7766, 011-583-6632





마음이 아름다운 당신은 보리수의 작은 희망이 됩니다.



<p>국제 로타리3590지구 진주축석 로타리클럽 경남 진주시 봉곡동 23-13 ☎055-749-2468</p>	<p>개 천 된 장 김향숙, 탁동열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518 E-mail : gcdj@naver.com ☎055-672-5459, 011-9332-3500</p>	<p>(주) 동명특수강 대표 이 성 갑 경남 진주시 상평동 158-20 ☎055-753-8822~3, 762-3344~5 취급품목 : 탄소강, 합금강, 공구강, 마한봉</p>
<p>진주작은사랑 인터넷동호회 daum.net/love4i 봉사단체</p>	<p>틈새사랑 요리체험학습 & 생일행사 봉사단체</p>	<p>프로스팩스 박 상 범 김해시 안동 360-1 국제상사물류센터 ☎016-551-6024</p>
<p>(주) 두산중공업 큰사랑회·법우회 봉사단체</p>	<p> 松園가든 박 재 홍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375-3 (골프장 입구) ☎753-9339, 759-9288, 011-9503-9776</p>	<p>수 양 모 텔 이 재 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673-0781</p>
<p>국립진주산업대학교 부설 청담사상연구소 소 장 허 익 구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 ☎751-3699</p>	<p>박 형 목 대한투자증권 경남 창원시 중앙동 95-2 뉴올림피아타운 1층 ☎279-0700</p>	<p>淸光畫室 淸光 金容大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811-24 ☎051-466-8467, 011-594-5468</p>
<p>(주) 세 창 약 기 대표이사 최 호 진 경남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1030-1번지 Tel 055-271-6881~4, Fax 055-271-4186</p>	<p> 한양한방병원 이사장 김 성 술 사회복지법인 한양복지재단 한양한방병원 경남 진해시 풍호동 773번지 ☎546-4630, 546-0140</p>	<p>변호사 손양곤 법률사무소 경남 진주시 상대동 296-91 ☎055-762-8866</p>
<p>제 중 당 한 의 원 한의사 이 병 조 경남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828-9번지 ☎055-672-3689</p>	<p>동 명 한 의 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980-19번지 ☎031-732-0772</p>	<p>Beautiplex 뷰티플렉스 대 표 강 숙 이 경남 마산시 월남동 5가 4-8번지 ☎055-245-8743</p>
<p>자동차/화재/자금대출/적금/연금  LG화재 도동영업소 대리점 대표 김 점 연 경남 진주시 평안동 168(구.나포리예식장3층) ☎747-8474, 8475</p>	<p>이엠코리아(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398-3번지 ☎055-582-6221</p>	<p> 황토 락 방앗간 이 화 옥 경남 창원시 대동황토방 상가지하 104호 ☎264-9490, 267-8521, 019-271-9490</p>
<p> 경남은행 고성지점 부지점장 윤 갑 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88-9 ☎673-4601</p>	<p>반 성 주 유 소 하 창 식 진주시 이반성면 가산리 477번지 ☎758-8817, 016-586-8817</p>	<p> 韓國精密器械株式會社 대표이사 하 종 식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475-4 ☎582-7871~5, 582-2153~5</p>
<p> 사회복지법인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 회 장 최 재 호 경남 창원시 외동 853-10번지 ☎261-1328, 1368, 011-9780-7183</p>	<p>KEB  진주외환은행 경남 진주시 동성동 5-7번지 ☎055-743-1015</p>	<p>장수한의원 (구)장수당건재 원 장 김 봉 근 마산시 회원2동 578-13번지 ☎248-1997, 248-0855</p>





보 현 사 월전스님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산1-2번지 ☎673-1192	봉 립 사 운남스님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139-9 ☎237-2266	불 곡 사 도홍스님 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 ☎282-7402	세 월 암 천우스님 경남 마산시 예곡동 산42-1(불영산) ☎055-221-7730
성 주 사 원정스님 경남 창원시 성주동 102 ☎262-0208	여 여 정 사 정여스님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355-9290	선 광 사 성운스님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산8-32번지 ☎051-302-5657	옥 천 사 진성스님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 ☎672-0100
진주장애인복지관 성공스님 경남 진주시 상대동 284 ☎749-2114	창원봉림사관음회 회장 최 창우 경남 창원시 봉림동 산139-9 ☎018-560-5515	칠 불 사 통광스님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605 ☎883-1869	동 화 사 허운스님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053-982-0101~2
화 방 사 법광스님 경남 고령군 대곡리 1448번지 ☎863-5011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혜근스님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번지 ☎744-1321	연 화 사 도법스님 경남 통영시 미수2동 44-1 ☎645-6683	천지선원 보운스님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235-2 ☎742-0511
사천달마사 해일스님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외리 172 ☎852-3355	정 인 사 원행스님 경남 마산시 양덕1동 41-2 ☎256-5450	미 래 사 여진스님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영운리 233 ☎645-5324	법 료 사 경남 통영시 태평동 368-1 ☎645-5430
한국제강 대표 하 성 식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365번지 ☎582-6800	불 지 사 경남 창원시 신월동 93 은아A후문 ☎262-6663	만 화 방 초 관리자 정 종 조 경남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17-5 ☎051-610-1041~3	부산 생활선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8동 1049-2번지 ☎051-852-009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고성군 고성읍 외외리 331-4 ☎055-674-6050	화백 권 영 호 경남 마산시 진동면 요정리 241 ☎055-272-0108	창원삼정자초등학교 교 장 황 채 석 경남 창원시 삼정자동 484-1 ☎055-264-2362	창원봉림중학교 교 장 박 성 진 경남 창원시 사람동 102 ☎055-263-6796
위드건축 대표이사 정 종 영 경남 창원시 상남동 NEST빌딩 1013호 ☎284-4000	한국산업 경남 창원시 상남동 23-7번지 토토스빌딩 12층	가마골숯불촌 대표 윤 중 갑 경남 창원시 가음정 본동 520 ☎282-8100	영농식육점 대표 박 범 기 경남 사천시 정외리 389(시장통내) ☎852-0621
개천우체국 국 장 정 종 필 경남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625 ☎672-0001	죽 립 사 자문스님 ☎834-3254	백 운 암 지정스님 ☎852-3226	관 음 사 명전스님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장촌리 630번지 ☎754-6355
국 관 사 보련스님 경남 사천시 정동면 수청리 산12 ☎852-1049	금 강 사 성원스님 경남 거제시 신현동 수월리 216 ☎636-8634	백 리 향 대표 윤 호 병 경남 진주시 하대동 304-5 ☎055-763-3888	무 주 사 랑천스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3동 275-543 17동3번 반송빌라 ☎051)532-6563
무 학 사 학봉스님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산50 ☎583-2113	문 수 암 성혜스님 경남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134번지 ☎672-8078	미 립 암 정연스님 경남 진주시 가좌동 326번지 ☎759-8243	보 광 사 도홍스님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69 ☎674-2864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경남 창원시 팔용동 6-37 동림빌딩1층 ☎273-4900	경남 교사 불자회	마산교도소 불심회 회원 일 동	연화 교사 불자회 회장 최명림



법인 및 시설 세입 세출 예·결산 보고

1. 사회복지법인 정토만일회

(단위 : 원)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재산수입	1,222,000	사무비	1,330,000	재산수입	1,220,000	사무비	11,500,000
보조금수입	-	재산조성비	41,491,500	보조금수입	146,000,000	재산조성비	273,592,483
후원금수입	140,377,520	사업비	1,522,140	이월금	323,280,333	사업비	48,000,000
전입금	-	시설전출금	50,000,000	잡수입	11,000,000	시설전출금	130,407,850
이월금	265,824,200	잡지출	159,200			잡지출	3,000,000
잡수입	10,361,453	차년도이월금	323,280,333			예비비	15,000,000
계	417,783,173	계	417,783,173	계	481,500,333	계	481,500,333

2. 사회복지시설 보리수동산

(단위 : 원)

2009년도 결산서				2010년도 예산서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보조금수입	816,342,835	사무비	653,243,460	보조금수입	1,019,827,790	사무비	864,150,500
법인전입금	50,000,000	재산조성비	34,116,160	법인전입금	130,407,850	재산조성비	37,200,000
이월금	13,717,504	사업비	191,825,236	이월금	7,680,354	사업비	263,666,040
잡수입	6,995,590	잡지출	190,719	잡수입	9,100,546	잡지출	1,000,000
		차년도이월금	7,680,354			예비비	1,000,000
계	887,055,929	계	887,055,929	계	1,167,016,540	계	1,167,016,540



「사랑의 후원 보내기」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씨앗이 되어 큰 나무가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보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눔으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후원안내」

- ♥ 후원금에 대하여 연말 정산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금은 전화나 팩스 또는 편지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 후원금은 꿈을 키워가는 보리수동산 어린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1. 무통장입금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후원계좌	농협 : 827089-56-006691	예금주 : 강옥환(정토만일회)
	우체국 : 612564-01-000652	예금주 : 정토만일회
	경남은행 : 525-07-0087863	예금주 : 정토만일회보리수동산
시설후원계좌	농협 : 351-0053-7132-63	예금주 : 보리수동산
	우체국 : 612564-01-001104	예금주 : 보리수동산
	경남은행 : 522-07-0084675	예금주 : 보리수동산강옥환

2. 은행간 자동이체

거래은행에서 위 은행으로 계좌간 이체 신청을 하여 원하는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 거래금융 기관에 직접 신청

3. 지로입금

본 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후원신청서 및 지로를 보내드리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4. CMS 자동이체 신청

보리수동산 055)673-5321번으로 전화하시어 CMS후원신청에 필요한 몇가지 정보를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보리수동산 정기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물품 후원을 기다립니다」

생필품, 의류, 책, 참고서, 신발, TV

「보리수 동산은....」

보리수동산은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만 18세이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 시설입니다. 우리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복지시설로 문의해 주십시오. 세기를 나아가야 할 아동들이 불우하고 위험한 환경에 더 노출되지 않고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장님 이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초록연꽃

발행처 : 보리수동산

발행인 : 승욱 스님

편집위원 : 박말선 · 이영빈 · 강승규



보리수동산을 후원해 주신 업체를 소개합니다

용 하 한 의 원

네명의 전문한의사 원장님이 공동으로 진료하고 연구하여 더 나은 치료효과를 발휘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치료경험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한의원, 환자가 중심이 되고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한의원,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아는 한의원이 되도록 저희 용하한의원 일가족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하한의원의 3단계 특수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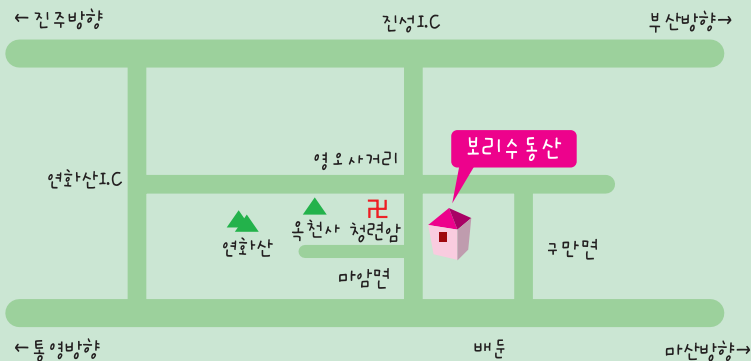
- 1단계 : 혈액정화
- 2단계 : 오장육부 기능조절
- 3단계 : 면역력 강화

용하한의원의 전문클리닉

- | | | |
|-----------|-----------|------------|
| 1.중풍예방클리닉 | 2.여성클리닉 | 3.과민성대장클리닉 |
| 4.회복클리닉 | 5.만성피로클리닉 | 6.척추관절클리닉 |
| 7.한방피부클리닉 | 8.간해독클리닉 | 9.간질클리닉 |
| 10.알러지클리닉 | 11.수험생클리닉 | 12.스트레스클리닉 |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625-1(상공회의소 계량중학교 뒤편)
TEL : (055) 633-3114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
정보만일회

638-982 경남 고성군 개천면 좌연리 633-1번지
전화 : (055) 673-5321 팩스 : (055) 673-5347
홈페이지 www.borisudongsan.or.kr